

### [광복절 73주년 특집] 회고: '내가 겪은 8.15'

'해방 당시 나는 황해도 재령에서 국민학교 교사', P1 \_ 송재현 (의대 46)

'8.15와 손 맛', P10 \_ 김옥영 (문리 52)

'고향 찾아 4천리 길', P11 \_ 최용완 (공대 57)



송재현 (의대 46)  
일리노이주 거주

#### 해방 당시 나는 황해도 재령에서 국민학교 교사

이번에 광복 (해방) 73주년을 맞이하여, 동문으로부터 광복 당시, 감회, 기억, 당시 상황 등 기고를 원한다고 동창회에서 통지가 와서 몇 자 적어 보았다.

1945년 해방된 해는 내 나이 17세 때로 서울 경기공립중학교를 졸업한 해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1941년 12월 7일, 우리 모든 학생은 강당에 집합되어 이와무라(岩村) 교장 선생님께서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지금 막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하였다고 들었다. 이어 그는 대동아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엄숙히 말했다.

일본은 그 후 일지(日支)전쟁에서 확대되어 동남아 전체를 석권하고 버마(지금의 미얀마) 까지 진출 전전승승하였으나, 우리가 4학년 때에는 여러 지역 특히 해군 전투에서 미국에 많이 패하여 거의 패망이 다가와 있었다. 그때 중학교는 5년제였는데 내가 4학년 때 군인이 모자라 군인동원 목적으로 4년제로 변경하여 1945년 3월에 나는 5학년 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었다.

나이 든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당시 일본은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지휘하에

최후의 1인까지 미국과 싸운다고 발악하였다. 1945년 8월 6일 일본 본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8월 9일 다시 큐슈 나가사키에 또 한발의 원자폭탄이 터지자 드디어 일본 천황은 떨리는 목소리로 친히 라디오를 통하여 미국에 항복을 선언하여 8월 15일 전쟁은 끝이 났다.

나는 1945년 3월 중학 졸업 후 의사가 되고자 고향 가까운 평양의 의학전문학교(평의전)에 지원했으나 일본 학생들만 뽑아 떨어졌다. 그래서 고향 재령의 국민학교에서 17세의 젊은 나이로 촉탁 교사로 생활을 할 때 8.15 해방을 맞았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우리는 일본 교육만 받아서 3.1 운동, 중경의 임시정부 등 전혀 몰랐고, 처음으로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이름을 들었다. 김구 선생은 바로 내 고향 재령 옆 안악에서 출생하셨단다.

재령은 황해도에서 해주, 사리원 다음 셋째로 큰 읍으로 농업중심지(나무리 별판), 황해도 유일의 중학교 소재지(명신중학교), 또 기독교 신앙의 발상지로 유명하였다. 그래서 일본 식민지 교육은 더욱 철저하였기 때문에 그런지, 또 일본이 항복하고도 아직 남

아 있는 무장 경찰 때문에 그런지 해방이 되고도 거리에 나와 만세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 당시 이곳은 태극기 보기가 힘들었다. 우리집 사람 이야기인데 그때 어렸을 때 서울 돈암국민학교 다닐 때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학교 학생들이 일본이 망했다고 영영 울었다고 한다. 참 웃기는 이야기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국내의 각처에서 항일 구국 투쟁을 펼쳐왔던 우리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는 상관없이 몇몇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 우리 국토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얄타 회담에 의하여 38선이 그어져 한국은 남북으로 갈라져 이북은 소련군이 오고 이남은 미군이 온다는 소식이 퍼졌다.

해방되던 날, 나의 친구 김봉영(재령 명신중졸)은 제일 먼저 재령 뒷산에 있는 일본 신사(神社)에 가 불을 질렀다. 신사 옆에는 경찰서가 있었는데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리고 재령에는 곧 소련군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졌다. 아직 일본 경찰서도 있고 무서워밖에 나가 해방 만세를 부를 용기들도 없었으며 조용히 집에서 라디오만 듣고 있었다.

일본 사람들은 한곳으로 몰려 있었고, 일제 앞잡이 노릇 하던 사람들은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다. 어느새 공산청년동맹이 생겨 모든 기관을 점령하고 군인민위위원회가 생겼는데 그 위원장에 송봉옥 우리와 꽤 가까운 친척이 되었다. 그는 완전히 공산주의자였던 것이다. 곧 소련군 환영대회가 열리고, 완전히 김일성의 지시를 받는 조직체가 되었으며, 옛날 지주는 다 없애고 농지는 모두 농민에게 무상분배하였으며, 부자들의 재산은 몰수하였다.

그는 한 때 나를 불러서 가 보니, 나 보고 모스크바로 유학을 보낼 터니 가라고 하였다. 나는 이남으로 갈 계획을 하고 있어서 거절하였다.

그는 곧 농업상(농부장관)이 되어 평양 김일성 밑으로 갔다. 만일 내가 모스크바로 유학을 갔더라면 높은 자리 하나 받고 6.25전쟁 때 이남으로 내려와서 김일성 부하로 일하다 이미 죽었을 것이다.

드디어 소련군이 재령에 입성하였다. 우리는 동원되어 환영하러 나가보니 이건 군인이 아니라 모두 키가 작은 만주 별판의 거지 때 같았다. 어떤 군인은 긴 빵을 어깨에 메고 옷은 더럽고, 그나마 인솔 장교는 서구인으로 정복을 입고 있었다. 그 후 이 더러운 군인들은 시내를 활보하며 돈 되는 것은 모두 다와이(뺏음)하고...

특히 손시계만 보면 모두 뺏어 갔다. 특히 불쌍한 것은 일본인 여자들로 이 더러운 군인놈들의 강간대상이 되었다.

평양에는 가짜 김일성이 소련 뺏으로 들어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산국가를 세웠다. 나는 곧 이남으로 갈 결심을 하고 친구 최효원(명중 졸, 서울대 문리대 졸, 후에 6.25 전쟁 시 육군 대령이 됨)과 같이 도망쳐, 해주를 거쳐 밤에 몰래 청단을 지나 38선을 넘어 드디어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 서울에 도착하였다.

다음 해 1946년 봄에 나는 서울대 (구 경성제대) 예과(청량리) 의과(理乙)에 합격 서울대생이 되었다.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이향열 (법대 57)

논설 위원장

## 민주주의 발전에

### “언론 자유”는 절대 필수 조건

많은 미국의 주요 TV보도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이나 선거유세 때마다 “미국 TV 언론들의 뉴스는 허위 뉴스(Fake News)라고 경고하였으며, “미국 시민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믿으면 안 되고 트럼프 본인의 말만을 믿으라고” 목청을 높였다고 한다. 그보다 더한 권고는 미국의 TV 방송이나 언론들은 미국 시민의 적(Enemy of People)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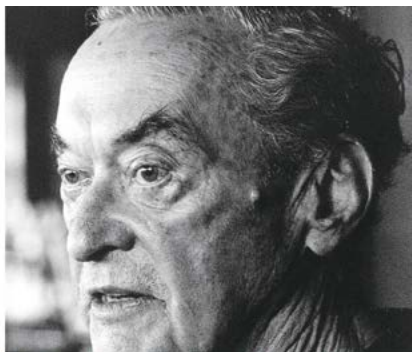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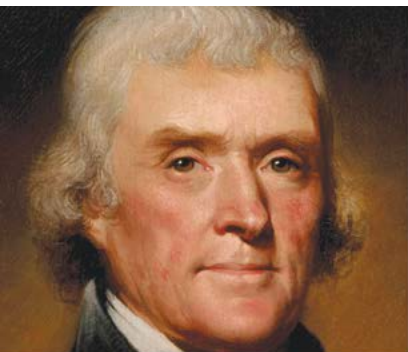
현재 민주주의 국가 중 대표 격인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런 황당한 말을 연설에서 하니 미국 민주주의를 자랑스럽게 여기던 미국 시민들이 미국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NY Times, Washington Post, NBC, ABC, CNN 등 많은 신문과 방송들은 국민의 적이고 가짜 뉴스(Fake News)를 조작하므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대략 국민의 40%를 차지하는 트럼프 추종자들은 점점 더 과격하게 나가 8월부터 (Q(Qanon) 17)이라는 Pocard를 들고 트럼프와 러시아 공모를 조사하는 Muller의 17명 조사단을 민주당원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하며 그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직에서 쫓아내고 미국을 망하게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은 Muller를 위시하여 조사팀에는 5명의 공화당원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모설(Conspiracy)을 트럼프는 부인은 커녕 오히려 장려하고 있으며 이제는 그의 변호사인 Giuliani가 주장하는 것처럼 러시아와의 공모, 결탁(Collusion)도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8월 1일에는 법무부장관 Jeff Sessions가 Muller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트윗(Tweet)을 보내 미국 사회를 불안하고 분열된 판국으로 몰고 있다.

현재 미국정부는 행정, 입법, 사법을 전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도 민주당 때문에 아무 일도 성취하지 못한다니 러시아의 푸틴과 같이 평생 대통령으로 정당도 공산당 이외에는 인정 안 하는 사회를 그는 동경하

고 있는지 의아하다.

이런 불안한 정치 판도에 있어서 언론조차 사실을 보도 못 한다면 결국 미국 민주주의가 몰락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 헌법



의 제한자들은 헌법 수정안 제1조에 제일 기본적인 자유를 민주사회 존속을 위하여 강조하였다. 즉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Speech, of the Press, Assembly and Association.

위에 열거한 자유들은 민주 법치국가의 심장이며 이런 자유들을 보장 못 하면 독재국가로 퇴보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도 자유스럽고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안되며 국민들은 그들의 대표를 뽑기 위하여 공정하고 거짓이 없는 정보를 얻어야 한다. 언론

의 자유가 없이 공정한 선거는 불가능하며 독재국가에서 모든 신문, 언론, TV 매체들을 국가에서 관할하여 선거를 하면 북한의 김씨 일가들처럼 99%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러시아의 푸틴도 80%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러시아 민주주의 국가의 현실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미국 언론계의 거장이었던 정치평론가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은 언론은 민주주의의 햇불이라고 하였으며 미국의 언론들은 그 중요성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부 이외에 언론은 정부의 제4부로 불린다. 즉 미국은 3권 분립이 아니라 4권 분립이 되어 있어서 민주주의가 균형 있게 발전한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아버지 격인 존 로크(John Locke)가 민주주의가

하며, 정부는 언론사들이 자유 개혁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장려해 주어야 한다.

미국에서도 많은 대통령이나 정치지도자가 언론들을 곱게 보지 않았다. 특히 보수적인 공화당 지도자들은 트럼프 이전에도 뉴욕 타임즈, 워싱턴포스트와 같은 진보적 신문에 비판적일 때가 많았다. 어제 8월 2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대신 National Security Agency의 Dan Coats, FBI Director Gray, Homeland Security Secretary 등이 사실대로 러시아가 이번 2018년 국회의원 선거에도 많은 조작과 정보를 Hacking 한다고 인정하는 모습이 그대로 좀 믿을직스럽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대로 러시아의 미국선거 간섭을 비난하고, 방지책을 발표하면 얼마나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가끔 트럼프 대통령은 제3대 제퍼슨(Thomas Jefferson) 대통령도 언론을 비난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며 제퍼슨 대통령은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 두 사회 중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그는 서슴없이 ‘정부 없는 언론’ 정치체제를 선택하겠다고 해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훌륭한 이 지적, 이성적 대통령이 되었으며 지금도 국민의 추모와 존경의 대상이 되는 지도자로 추대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미국에서도 언론이 공정하고 진실성을 중히 여겨야 하지만 대통령이 자기 정책을 비난한다고 모든 언론을 싸잡아 거짓말만 전달하는 매체로 전락시킨다면 히틀러와 그의 선전장 괴벨(Goebel)이 저지른 똑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게 될 것이다. 모든 독재자의 공통점은 언론의 자유를 폐지하고 자기가 선택한 기관지만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푸틴, 시진핑, 두테르테, 과거의 스탈린, 페론, 히틀러, 네로 황제 등의 정권들이 어떻게 붕괴하였으며 어떻게 끝나는가를 역사는 자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함성에 의존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신중하게 지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관하지 않은 공정한 언론 보도를 통하여 국민들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헌법이나 모든 자유 민주주의 헌법이 다 자유를 강조하고 있으며 공정한 언론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절대 필수조건이다.

전 세퍼드 대학 국제정치학 석좌교수, 전 재미 한국정치학회 회장

물론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언론의 권력도 견제되어야 하고 개혁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정부가 통제하려고 한다면 결국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언론 개혁과정에서 공화당이 과거에 항상 지지했던 자유시장 경제원칙이 적용되어야



정태영 (문리 71)

논설 위원

## 8.15 광복 정신의 계승

### 한국 독립 문명권 정립, 중국 문명권에서 벗어나기

1945년 '8.15 광복' 은 하드파워에 의한 하드 파워의 해방이었다. 외세의 무력(하드파워)에 의해 식민지 상태에서의 벗어난 지정학적인 물리적(하드웨어적) 해방이었다. 유감스럽지만 한민족 독자적 힘에 의한 해방이 아니었다.

광복, 즉 물리적 독립을 이룬지도 73년, 이제 한국은 본격적으로 소프트 파워(문화)에 의한 소프트 파워(문명)의 독립을 선언해 나가야할 시점이다.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은 지난 2018년 4월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정상회담에 앞서 한반도 역사를 오랫동안 설명했다. 그 요지는 “조선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중국의 속국(소중국)이었다” 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진핑의 한반도 역사 교육에 트럼프는 며칠 후 웰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한국의 역사 이야기를 꺼냈다. 북한이 아니라 (전체) 한국 말이다. 아다시피 수천년에 걸친 이야기였고 많은 전쟁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일부이곤 했다(Korea actually to be a part of China). 10분 동안 듣고 난 다음, 나는 그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이 중국(말실수로, 북한을 지칭하는 듯함)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강하게 느꼈다!”

(정상회담 후 4월 1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웰스트리트 저널’ 과 인터뷰한 내용을 한겨레 신문에 4월 19일 발행 보도)

시진핑의 고도의 소프트 파워 전략에 트럼프가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에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순간이었다.

중국을 지난 몇 십년간 급속한 경제력 증대를 기반으로 19세기에 잃어버렸던 동 아시아에서의 패권(hegemony)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중국몽(中國夢)이다.

그 중국몽 속에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권으로 다시 잡아 들어려는 중국의 노력은 집요하다. 소위 동북공정(東北工程)을 비롯한 고구려 역사의 중국화 등등. 최근엔 미북 협상을 둘러싸고 더욱 한반도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토인비는 1934년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A Study of History)’에서 현존하는 문명권으로 서구, 정교 그리스도, 이슬람, 힌두, 극동(Far Eastern: 중국 + 한국 + 일본) 문명 등 5개를 정의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복잡하고 매우 정교한 추적 과정을 통해 죽은 문명을 포함시켜 21개의 문명으로 분류했다. 극동(Far Eastern)은 <극동, 한국과 일본(Far Eastern: Ko-

rea & Japan)> 과 <극동: 중국 본토(Far Eastern: main body)> 로 둘로 나누어 여기에 포함시켰다. (토인비의 21개 문명 분류표 참조)

현팅턴의 문명지도를 보고 싶노라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역사 주장은 당연히 보인다. (현팅턴의 문명 세계지도 참조)

그런데 문제는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현팅턴의 문명 분류 방식이 떨떠름 하다는 것이다. 문명 담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두 사람이 한반도를 서로 다른 문명권에 포함시킨 것은 흥미롭다.

역사도 국제정치역학을 피할 수 없다. 역사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카(E.H.Carr)는 역사가를 생산을 요리하는 주방장에 비유했다. 시장

	'Unrelated Civilizations'	'Related Civilizations'		
		related through external proletarians	'affiliated' through internal proletarians with alien creative germs	with indigenous creative germs
B.C. 4000	Egyptian+Sumeric			
B.C. 3000	Minoan			
B.C. 3000	Sinic (?)	Indic+Hittite Syriac+Hellenic		Babylonic
B.C. 1000	Mayan Andean (?)			
B.C. A.D. 0000			Far Eastern (main body) Far Eastern (Korea and Japan) Western+Orthodox Christian (main body)	Hindu Yuzatec+Mexic
A.D. 1000			Orthodox Christian (Russia)	Iranic+Arabic
A.D. 2000				

<Toynbee's 21 Civilizations; A Study of History Volume 1 p. 186>



문명과 한국과 일본의 고대 문명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시공간(time & space)적으로 동시성이 없다는 것(non-coincident)을 그 이유로 들었다.

주목을 끄는 것은 그가 중국(Sinic) 문명이라 명명하지 않고 극동(Far Eastern) 문명이라고 한 것이다.

그는 고대 황하의 작은 지역 문명에만 중국(Sinic)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그가 극동(Far Eastern)이라고 명명한 것은 당시 서양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 준다.

60여년 후 사무엘 현팅턴은 1996년 그의 저서 ‘문명의 충돌에서 세계 문명을 중화, 일본, 힌두, 이슬람, 정교, 서구,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8대 문명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는 한반도의 남북한이 서서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미 통일에의 길로 들어섰다고 예단하면서 통일된 한반도를 통째로 중국문명권(Sinic civilization)에 포함시켰다. 유교 문명권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리고 전체를 중국(Sinic) 이

중국이 천하중심이라는 구시대의 낡은 생각이 ‘중화(中華) 개념을 문명에 끌어들이 중국에 공헌한 셈이다.

토인비 이후 왜 한반도가 중국 문명권에 귀속되었느냐는 의문은 에드워드 라이샤워 전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 (미국 주일대사 역임)의 지적을 보면 암시가 된다. 라이샤워는 1958년 그의 저서 ‘동아시아 문명사’ 에서 “한국인들은 중국문화를 숭배한 나머지 자국의 문화와 역사를 도외시하였다. 이에 대해 서구인들은 중국의 크기와 장구성에 현혹되어 중국 그늘에 가리워져 있는 흥미있는 한국 문화를 간과해 버렸다” 고 적고 있다.

이여 그는 “근세에 내려와서는 일본인들이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장막을 둘러쳐 외국인들이 한국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은 모조리 조직적으로 막았다. 이러한 결과로 1945년 한국이 해방되기전까지는 서방세계는 대체로 한국의 존재에 대해 망각하고 있었다” 적고 있다.

이제 한국은 국제역학에 따라 이리불고 저리불는 신세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다. 역시 한국의 눈부신 경제력의 성장 덕분이다. 한국은 유사이래 처음으로 중국보다 우월한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다(인당 GDP 및 GNP 기준). 유사이래 초유의 현류라는 것도 생겨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넘실대고 있다.

소프트 파워에 의한 소프트 파워(문명)의 독립이 가능한 시점이다.

문명담론에서 한국 문명의 독자성과 독립 범주화를 논하고 주장하고 연구해야 한다.

문명의 창조적 ‘소수설’을 주장하는 토인비는 문명과 비문명의 갈림길을 이렇게 설명했다. “정체된 국가에서의 지배적 소수자는 신 언덕 중간(ledge)에 누워있는자와 같고, 문명국가의 소수적 창조자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운동가와 같다.”(역사의 연구)

토인비의 인류 문명 21개 안에 들어가 있는 한국은 후자에 해당된다. 이제 한국은 ‘Far Eastern: Korea and Japan’ -> ‘Far Eastern: Korea’ -> Korea 문명으로 정립해 나가는 길을 모색하면 된다.

미래는 토인비가 말한 현대 생존 문명 5개는 물론이고 현팅턴의 8개 문명도 모두 죽은 문명이 되어 단일 문명(universal civilization)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고 있는 급속한 지구촌화 현상은 그걸 예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中國夢’ 같은 복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국가가 있어 인접국을 편안하게 두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 소프트 파워(soft power): 조지프 나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1990년에 처음 만들어 사용했고, 2004년 “SOFT POWER” 저서에서 이 개념을 발전시켰다. 무력이나 강요(hard power)보다는 문화, 가치 등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힘을 뜻한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2014년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증대시켜야 한다” 고 천명하면서 중국을 “사회주의 문화 대국”으로 건설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 문명(civilization)이라는 용어는 18세기 프랑스 사상가들이 야만(barbarian)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처음 사용했다. 문화 및 과학 기술이 발전된 상태를 말한다.

## 목 차

-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등문 글은 본 회보가 Copyright을 갖습니다.

1. [광복절 73주년 특집] 회고: ‘내가 겪은 8.15’ 해방, 당시 나는 황해도 재령에서 국민학교 교사 송재현
2. 민주주의 발전에 “언론 자유”는 절대 필수 조건, 이향열
3. 8.15 광복 정신의 계승, 정태영
4. 세계 최대 기술 회사들의 도전, 백순 / 트럼프의 감세법(減稅法), 김장수
5. 남가주 동창회 소식
6. 뉴욕지역 동창회, 미네소타 동창회 소식
7. 시카고 지역 동창회 소식
8. 북가주 동창회, 필라델피아 동창회 소식
9. 미주 한인 자녀들을 위한 모교 입학설명회 / 김영덕 동문 회고록 출판 / 이원영 동문 한의원 오픈
10. 광복절 73주년 특집 / 8.15와 손 맛, 김옥영
11. 광복절 73주년 특집 / 고향 찾아 4천리 길, 최용완
12. 참 나 (眞我)를 찾아서, 장동만 / 허리 부러진 ‘코레’의 비극, 조은정
13. 때를 아는 지혜, 박평일 / Lips of a Pasqueflower, 서윤석
14. 윤상래 (수의대 62) 미주동창회장 인터뷰, 정태영
15. 윤상래 (수의대 62) 미주동창회장 인터뷰, 정태영 / 제27차 평의원회 자체 결산 모임
16. 한글과 영어, 김기훈

17. 귀향 열차, 이원익 ‘뇌에서 ‘기억이 저장되는 곳’ 세계에서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강봉근 / 황보민영 환송식
18. 대원군, 민비 그리고 서재필, 온기철
19. 뉴욕타임스가 뽑은 한인 여기사, 이종호 / 학업과 인간관계, 빛이 준하경?, 이상원
20. ‘The Big Picture’, 주중광
21. I AM the people, the Mob 감상, 배효식
22. 鳳凰의 城 이원택
23. 鳳凰의 城 이원택
24. 후원금 집계
25. 동창회비 집계
26. 동창회비 집계
27. 동창회비 집계
28. 미주 동문 업소록
29. 미주 동문 업소록
30. 제14대 미주 동창회 집행부 조직도, 2017 미주 지역 동창회 회장단 명단
31. 광고
32. 광고





백 순 (법대 58)
논설 위원

세계 최대
기술 회사들의
도전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성장은 미국의
유수한 경제학자인 조셉 슈뎨터 (Joseph
Schumpeter) 가 제창한 바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임은 부인할 수 없는 진
실이다.

여기에서 경제원론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되는 쟁점은 기업가정신을 시장경제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아 가는 기업
(Enterprise) 또는 회사 (Corporation or Com-
pany) 의 크기 또는 규모를 어느 정도로
유지 또는 허락하여야 국민경제의 성장
에 기여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질문이다.
기업이나 회사의 적절한 크기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비용절감 또는 이윤증
식, 경쟁보장, 그리고 시장 또는 경제규모
의 크기 등 3가지 이다.

회사크기를 결정하는 이윤증식, 경쟁보
장, 그리고 시장규모 등 3가지 기본 기준
과 관련해서 대형회사들, 특히 최근 세계
최대 기술회사들은 3가지의 도전에 직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를 들어 서서 대형회사들은 주
로 기술관련 대형회사들이다. 현재 미국
의 Facebook, Amazon, Apple, Netflix,
Google (FAANGS) 등 5개 회사와 중국
의 Baidu, Alibaba, Tencent (BATS) 등 3
개 회사, 모두 8개 세계최대 기술회사들
이다. 8대회사들의 총 주식시장 자산가치
(Stockmarket Capitalization Value) 는 4
조 달러를 웃돌고 있다. 그 중 Apple이 0.9
조 달러, Google 이 0.75 조 달러, Tencent
가 0.5 조 달러, Alibaba가 0.5 조 달러 등등
이 세계최대 기술 회사들의 크기와 규모
를 보여 주고 있다.

이들 8대 기술 대형회사들이 그 크기와 관
련해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3가지가 있다.

첫째 도전은 국제적인 도전으로서 생산
비용을 계속 절감하고 이윤을 크게 증식
시키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규모확장의
투쟁 (Battle), 또는 격렬한 경쟁을 지속적
으로 수행해야 하는 도전이다.

미국시장이나 중국시장에서 규모확장에
한계와 규제를 맞이한 미국과 중국의 대
형 기술회사들이 제3세계, 특히 뜨는 경
제들에서 크기를 늘리고자 격렬한 투쟁
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8개 대
형 기술회사들은 3가지의 길을 택하고 있
다.

하나의 길은 지사를 설립하는 등 직접적
인 투쟁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의 대형 기술회사들이 제3국가들, 즉
브라질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 국가
들에서 서로 경쟁의 각축전을 벌이고 있
는 상황이다.

둘의 길은 지역회사들과 공동투자를 하
는 등 투자하는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예
를 들면, Amazon 이 인도에 50억 달러 규
모의 공동투자를 한다든지, 중국의 기술
회사들도 인도에 같은 규모의 공동투자
를 한 경우가 그 좋은 예이다.

셋의 길은 지역 정치적인 영향을 활용하
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대형 기술
회사들은 민주적인 우방국가들에서 규모
를 확장하기에 노력할 것이고, 아무래도
중국의 대형기술회사들은 권위적인 정권
이 지배하는 국가들에서 사업확장에 유
리하게 됨을 탐색할 수 있다. 결국에는, 세
계시장이 2개의 기술세력 블록으로 나누
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될지 모
를 일이다.

둘째 도전은 국내적인 도전으로서 대형
기술회사들이 반독점의 규제와 정책으로
인하여 회사를 해체하거나 또는 규모를
축소시켜야 하는 도전이다.

역사상, 대형회사들의 반독점 해체는 6
개 대형회사의 실례를 들 수 있다. 1813년
동인도회사, 1911년 스탠다드 석유, 1911
년 미국 철강, 1969년 IBM, 1974년 AT&T,
1998년 Microsoft 등등이 반독점문제로
해체된 대형회사들이다. 해체된 회사들이
성공하거나 아니면 실패하거나 하는
혼합된 결과를 들어 내고 있어서 반독점
의 규제와 정책으로 인한 규모축소의 도
전에 대응하는 대형 기술회사들의 대책
에는 종합적인 분석.연구가 요청되는 것
이다.

셋째 도전은 시장 및 경제 규모에 대비
하여 회사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유지하
여야 적절한 규모인가를 발견하고 그 적
절한 규모를 지탱해 나아 가는 도전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역사상 아직까지
국가의 경제규모에 비해 얼마의 회사규
모가 적절한지 합의된 이론과 수치는 없
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규모를 그 국가의
GDP 로, 회사의 규모를 회사의 이윤 (Prof-
it) 으로, 산출하는 경우, 6대 대형회사들의
GDP 대 Profit 비율 % 가 좋은 기준을 제공
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BM 과 Microsoft 의 Profit 이 GDP의 0.08%
로 제일 낮고, 동인도회사가 0.54% 로 제
일 높으며, 중간치 (Median) 가 0.24% 로,
이 통계에 의하면 GDP 대 Profit 이 0.24%
인 회사의 크기가 적절한 회사의 규모임
을 알 수 있다.

이 통계를 감안해 볼 때에, 8대 대형 기술
회사들의 수치는 이미 0.24%에 다다라 있
고 계속 성장하고 커지고 있다는 실정인
다. 지금의 경제는 세계경제의 체제가



김창수 (약대 64)
논설 위원

트럼프의
감세법(減稅法)

지난 해 연말에 개정된 미연방세법(The
Tax Cuts & Jobs Act of 2017)이 금년 1월 1
일부터 발효된 지 7 개월이 지났다.

미국은 공화당 행정부 때 세제 개혁을 위
한 개정세법을 주로 제정해 왔다. 레이
건 대통령 때 만든 The Tax Reform Act of
1986, 이 미연방 소득세법(Internal Re-
venue Code of 1954)에 대한 최대 손질이었고,
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 개정세법이
두 번째 큰 손질로 꼽힌다.

이번의 개정세법은 개인의 소득세 계산
시 39.6%의 최고 세율을 37%로 낮추고 표
준 공제액을 늘려서, 고소득층과 저소득
층은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었고, 중산층
은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표준 공
제액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서 상급
은 1만 2000달러, 합동보고하는 부부는 2
만 4000달러, 독신 호주는 1만 8000달러
이다. 65세 이상과 시각 장애인은 여기에
1300달러가 추가된다.

납세자를 포함해서 각 가족 일 인당 4050
달러씩 공제해주던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가 없어졌다. 대신 17세 이하
의 자녀 한 명당 1000달러까지 세액을 공
제해주던 부양자녀 세액 크레딧(Child Tax
Credit)을 2000달러로 인상하였다.

납세자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 부동산세 등에 대한 최대 공제액
을 1만 달러로 제한하였다. 소위 SALT-
(Sate And Local Tax)로 알려진 이 공제액
이 사실상 없어져서 소득세와 부동산세
를 많이 내는 뉴욕주, 뉴저지주, 캘리포니
아주 등지에 사는 주민은 상당히 불리하
게 되었다. 최근 뉴욕주를 비롯한 동부
의 4개 주가 대법원에 SALT제한법이 위헌
이라고 대법원에 연방정부를 고소하였는
데,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작년까지는 자택의 모기지론(Mortgage
Loan)은 100만 달러까지, 홈에쿼티론
(Home Equity Loan)은 10만 달러까지, 그
이자를 공제하였었다. 금년 1월 1일 이후
에 구입하는 자택에 대해서는 구입시 모
기지론의 75만 달러까지만 그 이자공제
를 허용하고 있고, 홈에쿼티론의 이자는

때문에 회사의 Profit을 국가의 GDP 에 대
비하기 보다는 세계의 GDP에 대비하여
산출해 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창되고
있다. 즉, 8대 대형 기술회사들의 규모는
19세기 및 20세기의 대형회사들의 규모
에 비해 훨씬 커도 적절한 회사의 규모라
는 이론이다.

현대의 대형기업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공제가 불허된다.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Charitable Con-
tribution)은 조정후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약자로 AGI)의 50%까지 공제되었
는데, 그 상한선을 60%로 높였다.

의료비는 올해는 AGI의 7.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하는데, 2019년부터는 10%로
상향 조정된다.

연방정부에서 선언한 자연재난 지역 이
외에서 발생하는 화재손실과 도난손실은
더 이상 공제할 수 없다. 또 AGI의 2% 이
상에 대해 기타항목별 공제로 인정받았
던 직장인의 미보상 비용, 소득세 보고서
작성 수수료, 투자 관련비용 및 이자 등이
더 이상 공제항목이 아니다. 그리고 이사
비용과 이혼위자료의 공제도 없어졌다.

상속세(Estate Tax) 및 증여세(Gift Tax)의 평
생 면세금액(Lifetime Exclusion)이 금년부터
1120만 달러로 올랐다. 부부 각자가
이 금액을 쓸 수 있으므로, 한 가정 당 면
세점은 2240만 달러가 되어, 웬만한 가정
에선 상속세와 증여세 걱정을 안 해도 된
다.

이상 언급한 항목들은 2024년까지 시
행되었다가, 별다른 개정사항이 없으면
2025년부터 2017년의 소득세법으로 되
돌아가게 되어있다.

비즈니스에 관련해서는 법인소득세(Cor-
poration Income Tax)의 세율이 최고 35%
에서 21%로 통일되었다. 그래서 대기업
에서는 소득세 인하로 이익잉여금이 더
축적되고, 배당액도 늘어난다. 대신 15%
로 법인세를 납부하던 영세소기업은 세
부담이 6% 늘어난다.

자영업자, 파트너십의 파트너, LLC의 멤
버, S법인체의 주주 등은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에 대해 20%의 특별공
제가 신설되어, 많은 절세를 하게 되었
다. 그러나 법률, 회계, 엔지니어, 의료 등
전문적인 인력 서비스(Personal Service)를
제공하는 업종은 이 혜택을 못 받게 되
어있다.

8대 대형기술회사들은 그 규모와 관련해
서, 규모확장을 위한 제3세계에서의 처절
한 경쟁투쟁, 반독점에 대한 대응, 그리
고 적절한 규모의 추구, 등등의 도전을 해
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전 미국 노동청 선임경제학자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교수



남가주 동창회 2018 가족의 밤 행사 개최

【기사: 홍선례 문화국장, LA】
지난 7월 28일, Hollywood Bowl에서는 남가
주 동창회(회장: 강신용, 사대 73) 주최로 ”
가족의 밤 행사”가 열렸다. 해마다 가정대 주
관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 올해는 280여명의
동문과 친지들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
다. 올 여름은 무척이나 뜨거웠다. 더구나 중
복이 지난 28일, 작업하는 태양 별 아래 동문
들은 모두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무들 사이로 부딪치는 상상한 바람이 무
더위를 쫓아내고 만들어 준 그들은, 우리에
게 시원한 안식처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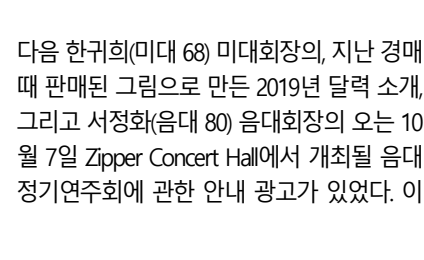
김지영 동문

어서 최용준 총무국장의 총동창회 다음 행
사인 Elm은천 가족 Camping(9월 1일~3일)에
관한 광고로 이어졌다.
이어 홍선례(음대 70, 미주동창회 문화국장)
동문의 음악회에 관한 내용 및 출연자 소개
등이 간략하게 있었다. 티켓 담당은 염인숙(
가정대 78, 가족의 밤 위원장) 동문, Appetiz-
er 준비는 안혜정(가정대 77, 가족의 밤 위원
장) 동문 주도 하에 손영아(음대 85), 김은진
(Guest), 케이(Guest), 다과 준비는 홍성선(약
대 72) 동문, 음식 운반은 조무상(법대 70) 동
문 등 임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였고, 와인은
강신용 총동창회장, 한귀희(미대 68) 수석부
회장이 Donation하였다.



서정화 동문

특히 한 동문이 이 행사를 보고 느낀 바가 있
어서 총동창회에 1500\$을 기부한 사실은 매
우 감동적이었다. 와인을 곁들이 저녁식사를
마친 후 단체사진 촬영이 있었고, 음악회장
으로 향했다.
이 날 감상한 음악회는 Musical Annie였다.
원작은 해럴드 그레이가 1924년부터 연재
했던 만화 <Little Orphan Annie(고아소녀 애
니)>이다. Musical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Animation과 드라마로 만들어진 인기작이며
1995년에는 기념 우표도 나왔다.



민병곤 동문 부부

다음 한귀희(미대 68) 미대회장의, 지난 경매
때 판매된 그림으로 만든 2019년 달력 소개,
그리고 서정화(음대 80) 음대회장의 오는 10
월 7일 Zipper Concert Hall에서 개최될 음대
정기연주회에 관한 안내 광고가 있었다. 이

어서 최용준 총무국장의 총동창회 다음 행



김지영 동문

사인 Elm은천 가족 Camping(9월 1일~3일)에
관한 광고로 이어졌다.

이어 홍선례(음대 70, 미주동창회 문화국장)
동문의 음악회에 관한 내용 및 출연자 소개
등이 간략하게 있었다. 티켓 담당은 염인숙(
가정대 78, 가족의 밤 위원장) 동문, Appetiz-
er 준비는 안혜정(가정대 77, 가족의 밤 위원
장) 동문 주도 하에 손영아(음대 85), 김은진
(Guest), 케이(Guest), 다과 준비는 홍성선(약
대 72) 동문, 음식 운반은 조무상(법대 70) 동
문 등 임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였고, 와인은
강신용 총동창회장, 한귀희(미대 68) 수석부
회장이 Donation하였다.



서정화 동문

특히 한 동문이 이 행사를 보고 느낀 바가 있
어서 총동창회에 1500\$을 기부한 사실은 매
우 감동적이었다. 와인을 곁들이 저녁식사를
마친 후 단체사진 촬영이 있었고, 음악회장
으로 향했다.
이 날 감상한 음악회는 Musical Annie였다.
원작은 해럴드 그레이가 1924년부터 연재
했던 만화 <Little Orphan Annie(고아소녀 애
니)>이다. Musical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Animation과 드라마로 만들어진 인기작이며
1995년에는 기념 우표도 나왔다.



민병곤 동문 부부

1976년에 Connecticut에서 초연되고 1977년
에 Broadway에 입성하고 Tony Awards(토니
상) 안무상, 대본상 등 4개 부문을 휩쓸었

다. 또한Grammy Awards(그래미상) Best Cast



강신용, 한귀희, 최용준 동문과 임원들

Show Album상, 뉴욕 드라마 비평가 선정 최
우수 Musical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연은 올
해 90세인 작곡가 Charles Strouse를 위한 특
별 무대라고 한다.



박혜록, 김옥경, 안혜정, 류정순 부녀

그리고 그 후 Annie역의 주인공이 여우주연
상까지 받으면서 Annie의 인기는 날로 커져
갔다고 한다.
때는 1933년, 세계공황에 의한 대공황으로
도시 실업자가 넘치고 모두가 희망을 잃어
가고 있던 시기였다. 뉴욕시 Manhattan 민빈
촌 고아원에 Annie라는 11살 소녀가 살고 있
었다.



이승택, 최용준, 성주경 동문 부부

Annie는 줄 서정병이 고아원 원장 미스 Han-
nigan의 학대 속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
었지만, 반드시 부모가 데리러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 건강하게 살고 있다. Annie에게는
11년 후 찾아오겠다는 부모의 편지와 목걸
이 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Annie는 자기보
다 작은 아이가 울면 노래를 불러 주며 무로
해 줄 줄 아는 어른스럽고 착한 성품이었다.

Annie는 세탁 아저씨의 도움으로 고아원을
탈출하지만 경찰에 붙잡혀 고아원으로 돌아
오게 되고, 20년 외출 금지라는 벌을 받게 된
다. 어느덧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 왔다. 세
계적인 감부Oliver Warbucks씨의 비서 Grace
가 크리스마스 연휴를 함께 보낼 고아를 찾

으러 온다. Hannigan의 벌을 받고 있던 Annie
를 데리고 간다. 언론 PR을 위해 고아를 초청
한 Warbucks였지만 Annie와 함께 있으면서
가족의 존재가 결여된 것을 자각하게 된다.



노명호 동문 부부

Oliver씨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밝은 모습으
로 사는 Annie를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미래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된
다. 그는 진지하게 Annie에게 영아가 되어 달
라고 하지만, Annie는 거절한다. 낙심한 War-
bucks는 그녀를 위해 친 부모가 나타나면 5
만달러라는 거액을 사례금으로 주겠다는 제
안을,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밝힌다.



Mrs. 정병혁, 홍선례, 정병혁 동문

그러나 Hannigan 원장과 남동생 Rooster
Hannigan과 그의 여자 친구 Lily가 친 부모를
가장하고 나타낸다. 돈만 받았으면 Annie를 없
애려는 음모를 꾸미고 Annie를 데리러 간다.
때는 크리스마스 날 아침, Oliver씨 집에 큰 소
동이 벌어진다. FBI의 수사 결과, Hannigan원
장과 그 일당의 사기 사실이 드러나고 Annie
의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밝
혀지면서 Annie는 Oliver씨의 딸로 입양된다
는 내용이다.

연출은 Michael Arden, 지휘는 Todd Ellison,
Annie역은 Kaylin Hedges였다. 이 Musical에
서 자주 연주되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인
기곡 Tomorrow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그
려내는 아름다운 노래였다. 아름답고 희망이
있는 감동의 Musical Annie는 희망의 메시지
를 전해 주는 가족 Musical이었다.

밤 11시가 다 되어 음악회가 끝나고, 아이들
과 손에 손을 잡고 걸어 내려오는 부모들 무
리 를 바라 보면서, 그 안에서 동문들의 가슴
 가득한 사랑이 느껴졌다. 돌아 오는 길은
은 가뭄이었고 내 마음은 뿌듯하기만 했다.
다음 총동창회 행사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2018 정기 총회 및 이사회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

### 뉴욕지역 동창회 2018 정기이사회

【기사: 김원영 편집장, 뉴욕】

제40대 뉴욕지역 동창회 정기 이사회 및 총회가 7월 19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40여 명의 이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40대 임원진은 회장 손대홍 (미대 79), 이사장 한태진 (의대 58), 수석부회장 조상근 (법대 69), 감사 김명승 (상대 65), 조달훈 (사대 66), 사무총장 이주연 (음대 86), 장학위원장 김창수 (약대 64) 동문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행사는 1부 만찬, 2부 총회, 3부 이사회 순서로 진행했다. 평일 오후 6시반 모임이어서 컵타일검 디너 순서를 1부로 했다. 참석 이사들은 반가운 인사와, 식사, 와인을 나누며 1부 행사를 했다. 이대영 전 회장, 정해민 전 이사장, 손경택 골든 클럽 회장의 건배

의 순서가 있었다. 제2부 순서는 이주연 사무총장의 사회로 이대영 제39대 회장의 이임사. 제40대 회장 취임사, 제40대 이사장 한태진 동문과 김명승, 조달훈 동문의 감사 인준, 손경택 골든 클럽 회장 격려사, 신웅남 미국주동창회 차기회장 인사말, 김명승 전임 감사의 제39대 회계 감사 보고가 있었다.

손대홍 신임회장은 제40대 동창회 행사 및 사업 계획, 예산안 인준을 진행하며 임기 중, 이사진 및 동문의 협조를 부탁했다. 손 회장은 행사계획 소개에서 2018 추계 골프대회, 2018 송년회, 2019 장학기금모금 추계 골프대회 등 정기 행사와 동창회 활성화, 동창회 기금 확충, 동창회 홍보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이대영 전



제40대 회장 손대홍 (미대 79) 동문

회장, 정해민 전이사장에 대한 감사패와 꽃다발 증정식이 있었다.

제3부는 한태진 이사장의 진행으로 이사회를 했다. 단대별 회장, 이사진 소개 후, 안건 토의가 있었다. ▲ 회장 임기 연장안, ▲ 타고 출신 모교 박사 명예 회원 수락안, ▲ 일반 기금에 지역사회 지원비 \$3,000 책정안, ▲ 장학기금 관리 체계 개선안, ▲ 가칭 '연례 뉴욕지



제39대 회장 이대영 (문리 64), 이사장 정해민 (법대 55) 동문에게 감사패 증정



제40대 이사장 한태진 (의대 58) 동문



제39대 이사장 정해민 동문 건배 제안

역 동창회 음악회 개최안 (운영: 이대영) 등의 토의가 있었다. 뉴욕지역 동창회 음악회 개최안이 통과되었다. 다른 안건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 기념 촬영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행사인 추계 골프대회에서 만날 것을 기약했다.

### 뉴욕지역 동문 합창단 창단



Olive Garden에서 저녁식사와 담소를 나누며.

정부가 해외 대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선진 교육 환경 조성에 일조하고자 서울대학교를 도울 학교로 미네소타 대학교를 지목하여 농과, 의과, 공과대학을 시작으로 하여 수의, 간호, 보건, 행정대학원을 대상으로 1955년부터 1961년까지 7년간 진행되었다.

교수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총 218명이 교육을 받았고, 71명이 석사, 15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의 물리적 환경이 복구되고 개선되었다. 또한 대학 교육이 현대화되고 향상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한국 전체의 고등 교육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미네소타 대학교는 지금까지 7,000명이 넘는 한인 유학생을 배출하였다. 또한 미술대학은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참가한 것은 아니었으나 미네소타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대학간 미술작품 교류전을 하게 되면서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또다른 중요한 역사적 기록물을 남겼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53) 등 원로선배들과 만나 관련한 정보와 이야기를 듣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오 교수는 현재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서울대학교와 나아가서 한국의 발전에 얼마나 공헌했는가를 책으로 펴내는 작업을 하고있다. 떠나기 전날에는 미네소타 동창회장 황효숙 (65) 동문과 임원진을 비롯한 여러 동문들이 모여 세인트폴에 있는 Olive Garden에서 저녁식사와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사진 참조).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

### 미네소타 동창회 모교 연구부처장 오현석 (교육 86) 교수 방문



왼쪽부터 성욱진(67), 송세진(78), 양한승(89), 남세현(67), 김권식(61), 전성규(53), 황효숙(65) 회장, 오현석 교수(86) 내외, 용정식(86), 변우진(81) 동문

【기사: 양한승 총무, 미네소타】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관한 기록들을 수집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연구부처장 오현석 (교육 86) 교수가 2018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미네소타 대학을 방문하였다. 오 교수는 미네소타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관한 기록들을 카피 및 스캔해서 서울대로 옮기는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7월 31일에는 현재 미네소타에 1960년대부터 거주하고 계신 송창원(53), 김태환(58), 전



첫 연습을 하고 기념촬영, 맨우측이 최준희 동문

【기사: 김원영 편집장, 뉴욕】 뉴욕지역 동문 합창단이 창단했다. 창단 첫 모임이 8월 14일, 뉴저지 하나임 교회에서 동문과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합창단은 지휘자 이준희(음대 95) 동문이 음악과 합창을 좋아하는 지역 동문의 뜻을 모아 창단하게 되었다. 서울대 동문이나 동문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다. 격주로 화요일 3시에 뉴저지 하나임 교회에서 연습 모임을 갖는다. 다양한 장르(가곡, 팝송, 민요 등)의 음악을 합창으로 배우고, 동문과 함께 교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는게 목표라고 한다. 참여를 원하는 동문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람.

▲ 지휘자 이준희 (음대 95), 929-345-4379, baritone1002@yahoo.com  
▲ 뉴저지 하나임 교회, 690 River Dr. Elmwood Park, NJ 07407



### 시카고 지역 동창회 연례 하계 야유회

【기사: 김훈태(사회대 84) 총무, 사진: 임현재 (의대 59) 동문】 6월 30일(일)에 시카고 지역 서울대 총동창회의 연례 야유회가 Elk Grove에 있는 Ned Brown Meadow(Busse Woods Grove #30)에서 있었다. 화씨 97도, 체감온도 110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2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여하였다.

이날 야유회는 교가 제창에 이어 최근 별세한 동문들에 대한 묵념을 하였다. 동문들은 정담을 나누며 송재현 선배님의 건배로 맛있는 식사, 이어 두시간여 동안 즐거운 여흥 시간을 가졌다. 흥해례 회장(사대 72)의 동문 소개와 한재은, 김호범 동문에게 27차 평

의원회에서 받은 공로패 전달 등 공식 순서 후, 장영수 부회장(공대 73), 김훈태 총무(사회대 84)이 이끄는 즐거운 프로그램과 푸짐한 선물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인디애나에서 온 동문도 있었고, 1946년 입학한 송재현(의대) 대선배로부터 2002년 입학 동문까지 참여한 이번 야유회는 폭넓게 발전하면서도 젊어져 가는 시카고 서울대 동문회를 예고한다. 이날 시카고 동창회 창립 35주년 기념 주소록 및 총람도 배포되었다.

http://www.alumni-world.com/snuachicago/newsletter/201806/index.htm  
email: snuaachicago@gmail.com



건배사 하시는 송재현 (의대 46) 동문님



캐노피 아래 차려진 음식들

동문선배님께 안녕하십니까.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는 듯 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시카고 서울대 동창회는 동문님들의 성심을 모은 장학기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창회의 장학금은 지역사회의 뛰어난 인재를 키우는 뜻있는 사업이오니, 우수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생 선발 요강>

- 선발인원: 일반장학금 5-10 명
- 장학금액: 1 인당 \$1000
- 용모자격: 시카고 및 인접지역 (IL, WI, IN, MI, IA) 에 거주 (permanent address) 하는자로서 High School Senior,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유학생 포함)에 한함
- 용모마감: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까지
- 구비서류:
  1. 원서 1통 (원서용지는 www.snuachicago.org 에서 download 받을수있음)
  2. 추천서 2통 (한통은 소속 학교 교사/교수에게서 받고, 다른 한통은 서울대학교 시카고 동창회의 2018년도 회비를 납부한 동창 회원으로부터 받아야 함)
  3. 성적증명서 (transcript)
  4. Essay
- 원서제출처: 원서는 이메일로 보낼 것. 이메일 주소: snuaachicago@gmail.com (Subject 칸에는 학생이름을 쓰고, e-서류가 아닌경우는 scan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서는 추천인이 직접 동창회 e-mail 주소로 보내주시도록 요청드리기 바랍니다.)
- 비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예년과 같이 금년도 동창회비를 내신 동문님들께서는 우수한 인재를 추천하셔서 우리 동창회의 개별된 장학정신을 구현하는데 적극 참여하십시오.
- 장학생 선발 요강 웹사이트: www.snuachicago.org
- 2018 장학생 선발 공고 페이지: http://www.alumni-world.com/snuachicago/public/scholarship.htm

참여 협력 영감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 978-835-0100 | F 978-353-1882

www.snuaa.org  
email: general@snuaa.org

## 제16대 (임기 2021. 7 ~ 2023. 6) 회장 후보 추천 공고

서울대 미주동창회에서는 미주에서 활동하시는 동문 회원 중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실 차차기 회장 - 제16대 동창회장 (임기 2021. 7 ~ 2023. 6) 후보자 추천을 서울대 미주동창회 정관 및 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6일

서울대 미주동창회 인선위원장 손재욱 (제13대 회장)

연락처: 손재욱 전화장 (267-736-2992) | 윤상래 회장 (978-835-0100) | 신웅남 차기회장 (646-523-9606)

### 제16대 회장 (임기 2021. 7 ~ 2023. 6) 선거일정 및 근거규정

1. 선거일정: a. 2018년 12월 31일: 회장 후보 추천서 접수마감  
b. 2019년 6월 혹은 7월: 전국평의원의회의 (정기총회)에서 투표: 차차기회장 확정
2. 근거규정: Nomination Committee (Standing) Rules & Regulations





원북부터 광준경 (별대 75), 민병근 (공대 65), 임준원 (공대 77), 이희만 (간호대 70), 신응남 (농대 70), 박찬호 (자연대 81)

### 북가주 동창회 신응남 차기 회장 방문

【기사: 박찬호(자연대 81) 총무, SF】 차기 미주동창회장인 신응남 동문 (농대 70) 이 부인 이희만 동문 (간호 70)과 함께 2018년 7월 13일 북가주 동창회를 방문하였다. 북가주 동창회에서는 민병근 이사장 (공대 65), 광준경 회장 (별대 75), 임준원 부회장 (공대 77), 그리고 박찬호 총무 (자연대 81)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미주동창회와 각 지역 동창회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신 차기 회장은 미주동창회의 운영에 참여하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차기 사업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북

가주동창회를 포함한 각 지역동창회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도 깊이 있는 제안을 함으로써 북가주동창회 임원들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였다. 신 차기 회장은 미주 동창회관/서울대 클럽 건립 및 동창회 운영기금 3백만원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고, 북가주 지부 입장에서 동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씩 거점을 두어서 지리적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주동창회의 역점 장학 사업은 각 지부



제248차 (2018. 7. 21) 토요일 정기 산행 후 포즈를 취한 동문들

와 유기적인 협조아래 선정 대상을 포함하여 제반 사항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데 인식을 공유하였다.

북가주 동창회는 산호세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동창회의 캘리포니아 중북부 지역 지부이다. 현재 주소록에는 640여 동문이 등록되어 있으나, 많은 젊은 동문들의 명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매년 서울대학교 오픈 형식의 골프 대회를 봄에 개최하며, 여름 또는 초가을에는 동문가족 하이킹 겸 피크닉을 진행한다. 금년의 하이킹과 피크닉은 8월 18일 11시부

터 2시 까지, 스티븐스 크릭 카운티 파크내의 시커모어 그늘 사이트에서 진행할 예정이므로, 많은 동문들이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12월 초에는 연말 송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의 송년 모임은 12월 8일에 더웨스턴 팰로 알토 호텔에서 저녁 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북가주 동창회는 매주 토요일 스티븐스 크릭 카운티 밖에 있는 약 5마일 거리의 진퍼널 트레일을 하이킹하는 진퍼널 하이킹 클럽이 있으며 지난 7월 21일 토요일 제 248차 정기 산행 (위 사진)을 진행하였다. 오는 10월에는 창립 5주년을 맞게 된다.



### 필라델피아 동창회 모교학생 '찬양 선교단' 공연

【기사: 김정현 (공대 68), 필라델피아】 모교 음악대학 성악과 학생들로 구성된 <찬양 선교단> (지휘 신다영 성악과 11, 반주 콕 예인 기악과 14 피아노 전공)이 7월 11일부터 25일까지 미동부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를 순회하는 도중 7월 15일 저녁 6시 30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대교 회당 'Keneseth Israel', 7월 20일 오후 8시 30분, 뉴욕 그레이트넥 소재 뉴욕그레이트넥 교회 (715 Northern Blvd. Great Neck)에서 찬양공연을 가졌다.

이번 공연은 합창, 남성/여성 중창, 율동, 솔로, 판토마임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되어 장내를 가득 메운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게 했다. 청중들은 한결같이 가슴 깊이 울려오는 아름다운 찬양과 몸짓 하나 하나가 영혼을 맑게하며 상처를 보듬어 주는 힐링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1998년 창단된 찬양선교단은, 지도 교역자의 참석 하에 매주 정기예배와 일대일 양육을 통해 신앙 훈련을 하고 있는 공동체로 찬양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사역을

필라델피아에서는 필라델피아 동창회와 필라델피아 기독교방송국 공동으로 주최했다.



### 필라델피아 동창회 정기총회 및 강연회

【기사: 김정현 (공대 68),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동창회 총회가 30여 명의 동문들이 참여한 가운데 6월 30일 토요일 필라델피아 근교 미나도 일식 부페 식당에서 열렸다.

총회는 1부 총회, 2부 식사, 3부 강연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부 총회에서는 박혜란(공대 85) 회장의 전년도 활동보고와 재무보고가 있었고,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신입회장으로 전무식(수의 61) 동문을 선출했다.

2부 푸짐한 식사를 나눈 후 3부에서 전무식 신입회장이 준비한 '블로장생 가능한가?' 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다. 120세로 생각되는 인간 수명의 근거와 그렇게 장생하지 못하

감당하고 있다. 매년 여름방학에는 해외 사역을, 겨울 방학에는 수도권 작은 교회를 방문해 찬양사역을 펼쳐왔으며, 지금까지 방문한 국가는 중국, 홍콩, 미국(5회), 일본(2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대만,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등이다.



전무식 신입회장 '블로장생 가능한가?' 강연

는 이유 등을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무병장수할 수 있는지를 통계적 수치와 함께 조목조목 설명하는 뜻있는 강연이었다. 강연 후 참석자 전원에게 서울대 로고와 새겨진 티셔츠를 선물로 나누어주었다.

선교단은 모든 사역을 자비로 감당하며, 공연과 집회에서 오직 찬양곡만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지휘자도 단원들이 직접 선출하며,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



### 김영덕 동문 회고록 출판 기념회 개최

【기사출처: 미주중앙일보】 김영덕 (별대 58) 동문이 인생 80년을 기록한 회고록 '여든 다시 꿈을 꾸다'를 펴냈다.

김 동문은 회고와 수필 사진을 함께 엮은 회고록 발간을 기념해 지난 7월 28일 LA 월넛 소재 로얄 비스타 골프 클럽(Royal Vista Golf Club)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가족과 친지 모교 법대 동기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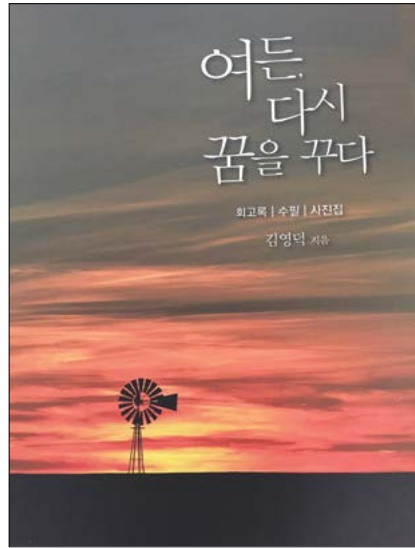


김영덕 동문 부부

김 동문은 모교를 졸업한 뒤 1965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오리건대와 샌프란시스코 주립대에서 경영학 학사와 석사를 취득했고 지난 2010년 은퇴할 때까지 40년간 금융인 외길 인생을 걸었다. 현재는 관심분야인 여행과 사진촬영 수필 쓰기 골프 등을 통해 또 다른 은퇴 인생을 보내고 있다.

'여든 다시 꿈을 꾸다'는 해방과 한국전쟁 등 근현대사의 명암을 목격한 김영덕의 인생 비망록이다. 280여 쪽에 걸친 은퇴 후의 삶에 이르기까지 삶의 희로애락을 진솔하게 담았다. 특히 한인은행인 윌셔은행(Wilshire State Bank) 창립 멤버를 거쳐 임페리얼은행(Imperial Bank) 윌셔센터은행(Wilshire Center Bank) 뱅코파퐁러(Banco Popular) 등에서 재직한 40년 외길 인생 이야기도 담겨 있다. 또한 영문 번역본으로도 실려 있다.

또한 책에는 '사모곡' '흰 개꼬리 삼 년' '험리 리 인생' 등 2010년 은퇴한 이래로 1년여 간 틈틈이 써온 수필 9편이 수록돼 있다. 더불어 자신이 촬영한 사진 108장도 담겨 있다.



을 꺼내고 함께 뜻을 나눈 많은 이들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했다'고 전했다.

한편 출판기념회는 김 동문의 아내인 김행자 씨의 75번째 생일에 맞춰 진행됐다. 참석한 모든 내빈들이 생일을 축하하며 더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정정합니다.**  
지난 291호 1페이지 기사 중 모교총장상 받 전기금부문에 **주중광(약대 60), 지홍민(수의 61)** 동문이 리스스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습니다.

### 미주한인 자녀들을 위한 모교 입학설명회

【기사: 김민중 (농대 74) 발전기금 LA 국장】 지난 6월 24일 Los Angeles, JJ Grand Hotel에서는 서울대 입학본부 주관하는 미주 동포 자녀 대상 입학설명회가 열렸다. 서울대학교는 전 세계의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을 시행하고 있는데 재미한인 자녀들 중에도 지원자격이 되는 학생들이 많아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통해 이해를 돕고 서울대 입학지원 원서를 받고 있다.



많은 학부모, 학생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입학설명회는 서울대 입학본부의 유혜영 입학사정관, 노은미 입학사정관, 그리고 유경하 입학본부과장이 서울대학교 상황과 입학지원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행사에는 LA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 70여 명이 참석해 모국의 최고대학인 서울대학교 입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합격한 한인 학생은 해마다 100명에서 12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수시모집 일반 전형은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모집단위(계열)별로 정한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자도 서울대학교에 입학자격이 있다. 이 일반전형은 미국내 동포 한인학생들에게는 많은 케이스가 아니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 입학본부에 E-mail이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이란 본인, 부모 모두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이수한 경우에 자격이 주어지며 입학시험이나 논술고사 없이 고등학교 성적 및 학교활동을 근거로 한 서류전형으로 선발된다. 거의 미국대학 입학과 동일한 방식으로 입학사정관이 이루어져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입학사정관들은 한국어가 어느 정도 능통해야 학교 공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합격 후 한국어 공부를 병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입학전형은 통해서 입학하는 학생들, 가장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거주 학생들이라며 현재는 이지역에서의 입학생들이 많고, 미국에서 서울대에

이날 입학설명회에 참석한 한인학생들과 부모들은 특히 서울대학교 학비가 1년에 250만원에서 400만원(2,000달러에서 3,500달러, 단과대학 별로 차이)에 불과하다는 데에 놀라며 저렴한 학비를 부러워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대학교 글로벌인재 특별전형은 또 미국내 학생들의 입학편의를 위해 가을 학기와 봄 학기, 두차례에 걸쳐 입학할 수 있다. 이날 입학설명회는 서울대 남가주동창회(회장 강신웅)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며 성황을 이루었다.

### 이원영 동문 자연치유 전문 한의원 오픈

【기사: 홍선례 문화국장, LA】 한국과 LA를 합쳐 30년 간 중앙일보에서 언론인으로 재직했던 이원영 동문(정치 81)이 최근 자연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을 오픈했다. 이 동문은 언론인 이후의 삶을 준비해 이미 20년 전에 주경야독으로 한의대를 마치고 캘리포니아 한의사 라이선스를 받았으나 바로 개업하지 않고 언론인으로 살아가다 지난 3월 말로 퇴직하고 LA에서 한의사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한 것이다.

사로서 출발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만약에 면허를 받아마자 개업을 했더라면 한의학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야가 한정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언론에 있으면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의료 관련 서적을 읽어왔기 때문에 의사로서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동문은 '자연 한방'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지만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향은 통합기능의학에 지향하고 있다. 즉,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병 환자들로 하여금 식생활 조절과 영양 처방으로 약의 장기복용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동문은 언론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의료 관련 서적을 섭렵한 것이 지금의

이 동문은 언론에 종사할 때 의료 칼럼을 꾸

이원영 자연한방이 권하는 **100세 무병장수 10계명**

1. 과식은 만병의 근원, 소식하라
2. 저탄(수확물) 고지방(생) 식사로
3. 약 작용기복역면 건강 잃어간다
4. 배고픔 때 면역력 향상, 즐겨라
5. 감진은 참고만 먹고, 생활을 바꿔라
6. 격한 운동은 몸을 녹슬게 한다
7. 가공식품의 첨가물들은 독수다
8. 완고해지면 치매 온다, 유엔해져라
9. 다 고친다는 의사는 찍어는 개 성격
10. 식사 맨 소(식)생(식)제(식)

이 동문은 개업과 함께 미주한인사회에서는 처음으로 '당' 독소(AGE) 측정기를 유럽에서

도입해 진단에 활용하고 있다. 당 독소는 잉여 당분이 단백질과 엉켜붙어 형성된 변형 단백질로 성인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독소 폭탄'으로 불리고 있다. 이 동문은 "이 진단기 측정을 통해 심혈관 질환과 당뇨 합병증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기에 환자로 하여금 현재의 식생활 등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데 좋은 장비"라고 말한다.

이 동문은 "한인들이 너무 약에 의존하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약을 한두먹씩 먹으며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만성 질병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식생활 개선, 영양 섭취, 면역력 향상을 통해 인체의 자생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이 동문은 기존 한의원과는 차별화된 운영을 할 것이라고 했다. 환자 1명 당 적어도 한 시간 이상 상담과 진단을 통해 환자의 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원인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영양제와 한약을 처방해 건강을 되찾게 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장기복용하는 약에서 해방되고 싶은 동문들의 문의를 환영한다고 했다. (213) 219-9748









장동만 (문리 55)

### 참 나 (眞我)를 찾아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라는 질문을 끊임 없이 하라. 진정한 자기 (眞我)는 육체나 마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결코 죽지 않는다." \_ 라마나 마하리쉬 (Ramana Maharashi, 인도 성자)

"나(我)는 곧 마음이다. 육신은 비록 내 것이라 해도, 그 것은 의상처럼 잠시 빌어 입은 것이다." \_ 청담 스님

혼자 조용할 때면 가끔 엉뚱한 생각에 잠긴다. "너는 누구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면서 자문자답 한다. "너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무슨 생각을 하면서 두 눈으로 모니터를 보며, 두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지 않느냐?"



엉뚱한 의문은 꼬리를 잇는다. "그 두 눈은 '나의 눈 (my eyes)', 두 팔은 '나의 팔 (my arms)', 머리도 '나의 머리 (my head)', 심지어 그 두뇌의 작용도 나의 생각 (my thought)', 그 모든 것이 '나(我)에 속한 부속물일 뿐, 나의 본체(本體)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너의 정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내가 누구인가?"라는 인간 탐구, 인간 정체 파악에 있어 기독교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졌느니라."라는 한 줄로 서술되어 있지만, 불교, 힌두교 등 동양 종교는 '나'에 대한 개념이 무척이나 광범위하고, 그 실체를 정의하는데 있어 매우 심층적이고, 극히 철학적, 사변적(思辯的)이다.

우선 '나'를 일컫는 용어들을 보면, '나(我)', 참 나 (眞我), 대아 (大我), 실아(實我=atman), 거짓 나 (假我), 개아 (個我), 유아(有我), 유아(唯我), 망아(妄我), 절대아 (絕對我) 등, 수도 없이 많다. 그리고 그 하나 하나에 대한 개념 풀이가 너무나 심오해 나로서 그 이해가 참 어려운데, "내가 누구인가?"를 일반 상식

선에서 한 번 생각해 본다.

#### 참 나 (眞我)를 찾아서

우리의 몸 (肉身)은 결코 '나가 아니다. 한 번 가상해 보자. 두 팔, 두 다리 등 사지(四肢)가 없어도, 이목구비가 없어도, 숨을 쉬는 한 '나는 존재한다. 몸 안 오장 육부(五臟六腑)도 제 기능을 못하면, 고치거나 남의 것으로 대체, 이용할 수가 있다.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나'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지 "나" 자체가 아니다. 그러면 '나의 본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는 사유 기능, 즉 머리 속에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

#### <예술 산책>

### 허리 부러진 '코레'의 비극

조은정 (시대 87)

그리스의 박물관들은 대부분 관람객들의 사진 촬영에 관대하지만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박물관만큼은 예외이다. 이 박물관 입구의 아스클레피온 유적 발굴품 전시실과 1층의 아케익기 전시실만큼은 엄격하게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그만큼 이 유물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아케익기 봉헌 조각실의 탁 트인 공간에 들어서는 이들은 자연 채광 속에 우뚝 서 있는 쿠로스(아테네 상)들 앞에서 거의 종교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물론 경이로운 첫 인상을 극복하고 나면 비슷 비슷한 모습 앞에서 대강 훑어보고 지나치게 마련이다.



그 수많은 아케익기 조각상들 가운데 하나가 '리옹의 코레'이다. 사실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원본 조각상은 얇은 주름치마에 덮여있는 허벅지와 엉덩이 뿐이다. 허반신 일부분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가운데 인체의 생동감과 사실성을 포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아테네 지역 조각양식의 발전 방향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프랑스 리옹 박물관에는 비슷한 시기에 속하는 여성상의 상반신 부분이 소장되어 있다.

과거 '마르세이유의 아프로디테'로 불린 이 조각상은 17세기 말 혹은 18세기 초 그랜드 투어 시대에 프랑스 귀족이 수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크로폴리스 코레상과는 워낙 상반된 표현 양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테네 지역과 멀리 떨어진, 그리스 세계의 변경 지역에서 제작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 두 조각상들이 실은 단일한 조각상의 일부라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 영국 고고학자 험프리 페인(Humfry Payne, 1902-1936)이다. 페인은 1934년 경 아크로폴리스의 조각상들에 대한 사진 카탈로그를 저술하던 중에 '마르세이유의 아프로디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사진을 검토한 후에, 곧 리옹 박물관에 편지를 보내서 석고 복제본을 요청했다. 프랑스에서 그리스로 보내진 소포가 세관을 통과하기까지 열하루 동안 초조하게 기다린 끝에 그는 곧바로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으로 달려가서 리옹의 석고 복제본 상체를 아테네의 대리석 하체 위에 올려보았다.



프랑스 리옹 박물관(왼쪽)과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오른쪽)이 소장한 코레(Kore) 상

결과는 놀라웠는데, 천 주름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이어졌던 것이다. 서로 다른 박물관에 떨어져있을 때는 그토록 달라보였던 양식도 동일했다. 실물을 직접 보지도 않고 두 조각상들의 연관성을 확인했던 페인의 천재적 감각은 지금도 경이롭기 그지없다.

현재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의 조각상 명판에는 페인의 기여를 알리는 설명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상체는 복제품으로 합체되어 있어서 원래 조각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만 이 그리스 여인상은 여전히 절반은 그리스에, 그리고 절반은 이역만리에 따로 떨어져 있는 운명이다.

목포대 미술학과 교수



박평일 (송대 69)

### 때를 아는 지혜

나뭇잎 위에 내리는 빗소리에 눈을 떴다. 새벽 두시다. 빗소리 때문 만은 아닐 것이다.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새벽 2시쯤에 잠에서 깨어나는 새로운 습관이 생겨났다. 나도 육체적으로 늙어가고 있다는 징표다.

어제는 모처럼 좋아하고 존경하는 대학 후배 R과 함께 오락가락하는 비를 맞으며 골프를 쳤다. 긴 자동차 여행을 떠나기 전에 문득 R이 생각이 나서 '시간이 되면 골프나 치자'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당장 "좋습니다. 몇 시쯤이 좋겠습니까?" 하고 응답을 해왔다. 후배 R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혼자서 가끔 찾는 'Generals Ridge 골프장에서 오전 10시에 만나자'라고 일방적으로 약속 시간과 장소를 통보했다.

한국의 이문재 시인은 '농담'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읊었다.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했을 때/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사랑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함께 골프를 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R과 인연은 내가 이 지역 대학 동창회 회장 일을 맡고 있을 때 그가 총무로 도와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내가 골프 동우회 회장을 맡았을 때도 그는 총무로 수고해 주었다. 그는 말은 일들을 표나지 않게 뒤에 숨어서 묵묵히 수행해 내는 타입의 인간이다. 솔직히 말해서 R과 나는 성격적으로 아주 대조적이다. 나는 외향적인 성격이고 그는 내성적인 성격이다. 나는 말이 많은 편이고 그는 말수가 없는 편이다. 나는 감성적이고 그는 이성적이다. 나는 일을 벌이는 타입이고 그는 일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타입이다. 나는 공격적이고 그는 방어적이다.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둘다 술을 좋아하고 노래방을 좋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R을 인간적으로 주위의 지인들 그 누구보다 좋아하고 신뢰한다.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R은 한국 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미국에 이민을 와서 컴퓨터 학사학위를 딴 후에 IRS에 평생 근무하다가 3년 전 60세 나이에 조기은퇴를 했다. 내가 여태껏 풀지 못하고 있는 그에 대한 수수께끼 중 하나는 각분야에 걸친 그의 해박한 지식의 원천이다. 특히 연예계 정보에 관한 한 그는 박사수준이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거나 노래를 듣다가 의문이 생기면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당장 회답이 나온다. 그의 부인 Dr. C는 나의 치료사이다. 그녀도 올해 60세 나이로 은퇴를 했다.

내가 R 부부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 부부가 평소엔 나에게 보여준 무욕의 삶일 것이다. 안정에 대한 집착에서 불안감이 비롯되고, 그 불안감이 탐욕을 낳으며, 탐욕은 타인과 비교심을 낳고, 비교심

은 경쟁심을 낳으며, 경쟁심은 시기와 질투를 낳으며, 시기와 질투는 불행을 낳는다'는 것이 나의 불행에 대한 지론이다.

내가 알고 지내는 지인들을 보면 그 직업이 성직자든, 독실한 신앙인든, 철학자든, 교수든... 경쟁심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어 보인다. 사돈에 팔촌이 눈을 사도 심한 배앓이를 한다. 일류학교 출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유명 인사들일수록 그 정도가 심한 편이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들은 경쟁이나 시기 질투의 대상을 가장 가까운 인친척들이나 절친한 친구들 중에서 찾는다는 점일 것이다. 나는 공자의 소인과 대인의 구분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다. '소인은 경쟁의 상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는 사람이고 대인은 경쟁의 상대를 자기 자신 속에서 찾는 사람이다' 라고.

그런 면에서 내가 알고 있는 R은 일류학교 출신 성공한 직업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만나면 늘 마음이 편하다. R 부부는 둘다 그 수입이 보장된 안정된 직업을 60세에 쫓겨치고 60세에 조기 은퇴를 감행했다. 물리날 때를 아는 사람들이다. 나도 조기 은퇴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주치의사이자 친구인 Dr. Lennon과 은퇴 시기를 두고 상의한 적이 있었다.

"은퇴에 가장 적합한 육체적 나이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나의 질문에 Dr. Lennon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은퇴에 대한 일정한 나이 기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재미를 못 느끼면 그때를 은퇴하라는 신호를 받아들여주세요." 라고 조언을 해 주었다.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나도 62세에 소셜시큐리티청에 조기 은퇴를 신청했었다. 남은 여생을 노래를 부르며 미국 양로원들을 돌며 봉사하고 싶었다. 그래서 오페라 가수로부터 6개월 개인지도도 받았다. 경제적으로 바보짓이라며 나의 조기은퇴 신청을 만류하는 회계사의 반대도 만만치가 않았었다. 결국 경제적 이유 때문에 나는 조기은퇴 결심을 실행하지 못하고 5년 가까이 더 일을 해야 했었다. 나에게 조언을 주었던 Dr. Lennon도 올해 갑자기 나에게 은퇴를 선언해 왔다. 그 이유인즉 "평생 의사로만 일하다 보니 내가 너무 좁은 길만 걸어온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은퇴해서 내가 걸어보지 못했던 넓은 세상을 경험해 보고 싶어요"였다.

매사에는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고, 물리날 때가 있다. 나는 그때를 노래한 구약성경의 전도서를 사랑한다. 때를 아는 지혜야말로 늙어가면서 배워야 할 가장 필요한 지혜다. 무욕은 그 때를 깨우쳐주는 근본 바탕이다. 이번 나의 여행은 때를 아는 지혜를 배우는 한 과정이 될 것이다.



서윤석 (의대 62)

### Lips of a Pasqueflower

at Pyeong-Chang Olympic Village, Gangwon-do

A massage chair made a pasqueflower's nose younger the unexpected whirlwind from the chair made many plants buy those chairs but those winds broke the 70 year-old tree and between the broken branches a squirrel who was eating an acorn met the mountain rabbit and they enjoy tasting the Gangwon-do bean soup and the cover of a century-old jar, the bean paste jar was opened the grandmother who passed away came out alive from the jar sings "Ber guk Ber guk." and the scared high speed KTX train runs away into a tunnel

under the stars the drone show is in action we all awake and hear the rhythm of arirang arirang arario and recall the flying paper kites and sleigh rides

responding to the spirit of the paralympic player with only one foot, the American eagle who received a kakao message of the young rocket man says "You guys must be in trouble. If you behave honestly, I may meet you once on June 12th in Singapore." but the Nobel Peace Prize committee in Norway may or may not give the 2018 award to these guys even after they pass doping tests

the mountain God with his icicle beard, who came down from the mountains, burned a pile of aromatic trees and made smoke and the rabbits who crossed the iron fence drank the Goryo Gaeseong wine to get drunk and are ready to kiss the lips of the pasqueflower, who has been singing the old Hymn "Oh, Jesus's world is so beautiful...the clean stream.."

but in this peninsula, where the numerous wounded skulls and smell of bloody battles still remain and the 70 year-old tree fell to pieces and the sore back bone of Taebaek mountains still moans with tears, the groups of the sparrows startled by the loud DMZ speaker fly into the foggy valley and the world hears them singing "Our unification is near, Dokdo and leo-island are also ours."



## 윤상래 (수의대 62) 미주동창회장 인터뷰

## “브레인네트워크를 주요 대도시들에서 함께 열면 미주동창회 싱크탱크 만들 수 있어...”

## 20-30년 후, 미주동창회가 소멸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기금 조성해야...

동창회 사무실은 윤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트윈시티 애니멀 허스피탈 건물 2층에 있었다. 널찍한 공간에 길다란 탁자가 서너개 이어져 있고 탁자 앞으로 의자가 둘러싸여 놓여져 있어 20여 명 정도는 항상 각종 회의를 할 수 있게 잘 갖추어져 있었다. 뒤편에는 주방 시설이 되어 있어 커피, 간식 음식 조리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음식 관련 기구가 잘 준비되어 있다. 윤 회장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동문들에게 다과, 음료, 음식 등을 정성스럽게 풍성하게 차려 제공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다. 덕분에 내조자인 김복섭 여사만 말없이 고생하지만,, 사실 음식을 차리고 먹고간 뒷 자리를 처리하는 것은 꽤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윤 회장은 이곳에서 동물 병원을 거의 40년이나 운영했다. 지난해 은퇴했다. 이번 인터뷰에선 그동안 필자도 잘 알지 못했던 동창회 기금 모금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현황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윤 회장은 기금 모금 문제로 계속 바쁘고 모금액 증대 방안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브레인네트워크의 역사와 향후 방향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

- 지난 6월 27차 평의원회의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의원회의를 두 차례 진행하셨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챙기시는 것을 옆에서 직접 보며 많은 헌신을 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끝나셨는데 소회는 어떠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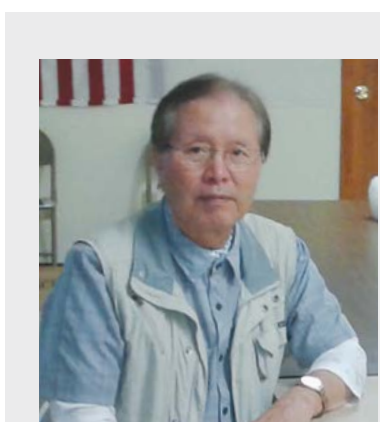
“평의원회의는 아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하려면 준비를 해야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훈련은 아니고, 똑같은 것을 하면서 자꾸 그 절차를 습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회의 때 일사분란하게 짝 나가지 않아요? 준비가 철저했지만 지난 회의에서는 사람이 부족했어요. 특히 회의장에 함께 진행을 도울 동문들이 부족했습니다. 몇 사람과 일하니까 어려웠어요. 그러나 잘 끝났습니다. 미주 전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동문들이 오니까 잘 보여야 하는데 좌우간 잘 했어요.”

-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거나 애로사항을 느낀 것은 없었습니까?

“시간이지요. 실무진들이 풀타임 잡을 가지고 하니까 낮엔 시간이 없고 밤에 일해야 하는데 가족들 케어할라, 직장일 할라 등 시간을 쪼개여 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나도 하루 종일 일했지만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여럿이 힘을 합해서 하니까 큰일을 잘 할 수 있었지요”

- 내년에는 뉴욕에서 평의원회의를 합니다. 주요 준비는 뉴욕서 하고 여기서는 몇 가지만 하지요?

“회의 진행은 우리가 합니다. 평의원회의 마지막에 동창회기가 차기 회장에 넘어가는데 그전까지 진행을 합니다. 다만 전체 회의장



윤상래 (수의대 62)

윤상래 미주동창회장의 임기도 절반을 지나 후반부에 진입했다. 차기회장직을

포함한 지난 2년은 평의원회의의 행사 준비로 여념이 없었다. 중간에 브레인네트워크도 두 번 개최하였다. 이제 큰 이벤트성 행사는 끝나 여유가 있을 것 같아 후반부 임기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을까 알아보기 위해 동창회 사무실에 찾아 갔다. 윤 회장은 아직 브레인네트워크 행사를 하나 더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요즘에도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인사를 접촉하며 조연도 구하고 방향도 정하느라 여전히 바쁘다고 했다.

대담: 정태영 논설위원 (문리 71)

준비, 만찬 등은 뉴욕에서 하지요.”

- 평의원회의를 하시면서 개선사항 등 느낀 점은 없나요?

“지난번 평의원회의의 평가회의에서 다 말했다



요.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일할 사람 부족이 있습니다. 이곳 뉴잉글랜드에 동문은 많지만 다들 바쁘니까 어려워요”

(“참고로 평의원회의의 평가회의 내용은 별도 기사로 이번 회보에 게재되어 있다)

- 평의원회의나 기타 다른 행사를 준비할 때 미주 전체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방안은 없나요?

“///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난점도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많은데 막상 부닥쳐서 그것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나는 바빠서 안돼 하는 답변이 되돌아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하자는 것이 내 개인의견이지요. 지금도 이것 저것 하라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프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 지난해에 회장직을 시작하시면서 병원을 은퇴하시고, 동창회장직을 풀타임 잡으로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해보시니까 풀타임 잡으로 하실 만큼 일이 많았나요?

“물론 풀타임으로 할 만큼 일이 풀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한 일도 정리해야하고 다른 것들도 정리해야 하면서

- 기금을 조성하는 동기는 뭔가요?

“앞으로 무슨일이 벌어지나 하면 말이죠. 지금 회비를 보내주시는 분이 다수가 50-60학번대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속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충당되지 않으면 회비수입이 고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니까 풀타임 잡이 되요. 저쪽 책꽂이 하나가 그 동안 (동창회 관련) 이메일과 다른 서류들로 꽉 차 있었어요. 그게 1년 동안 한것입니다. 이메일이 하루에도 답신해야 할 것만 50여건이 와요. 다른 것까지 합하면 200건이 넘지요. 일주일이면 2000개가 들어옵니다.”

- 임기도 절반이 지나셨고 이제 1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큰 행사도 지났으니 이제 할까 싶은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놀라는 표정) 왜 흥분하세요?”

-일이 더 많아요?

“걱정이 더 많지요. 기금 마련해서 그걸 키우겠다 했는데 커지는게 그게 안보이니까 걱정이요.”

- 어떤 기금이 있나요?

“센츄리 파운데이션(동창회 기금)을 \$300만

모금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SNUAA-USA 센츄리 파운데이션으로 이름을 정식으로 정해 만들었어요. 파운데이션을 설립한거지요. 한국어로 말하면 ‘서울대 미주동창회 재단’이 되는 거지요. 올해 평의원회의에서 관악원회의 회칙에 통과시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 기금은 원금을 건드리지 않아요. 후원 이사회비로 조성되는데,, 종신이사자가 \$3000을 내지요. 현재 종신이사자가 69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현재 기금이 약 \$23만 정도 되는데,, 하나도 안썼어요.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이자/이윤만 회장의 재량에 따라 동창회 운영에 사용합니다. 앞으로 \$300만이 모금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 즉 이자, 펀드 투자 등으로 대략 1년에 \$10만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운영비의 절반은 커버할 수 있지요. 이걸로 장차 회보도 만들고 동창회 운영에도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 기금을 조성하는 동기는 뭔가요?

“앞으로 무슨일이 벌어지나 하면 말이죠. 지금 회비를 보내주시는 분이 다수가 50-60학번대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속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충당되지 않으면 회비수입이 고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후배 학번들도 나이가 들면 동창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50년대 - 60년대 학번분들은 학창 시절에 어렵게 다니셨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애착이 크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소되면 동창회는 흐지부지 될 공산도 있지요. 운영을 못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아직껏 \$30만도 못 모았는데, 언제 모읍니까? 좌우간 그게(기금 모금) 꿈입니다. 꿈이 없으면 희망도 없어요. 우리가 꿈이 있으면 의지가 있고 이를 수 있는 꿈입니다. 여기에 우리 동창회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동창회도 없어집니다. 그게 없으면 20년, 30년 후에 우리 동창회가 없어집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데 돌아가신 송순영(문리 52, 10대 미주동창회장, 시카고) 회장께서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그분이 ‘브레인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분이 처음으로 2010년에 LA에서 브레인네트워크를 시작하셨어요. 주제는 한반도 문제이었어요. 그게 쉬우니까요. 그리고 2년 후에 2011년 다시 LA에서 회장단이 넘어갔을 때 그곳에서 김은중(상대 59) 회장이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오인환 (문리 63, 워싱턴 DC) 전 회장 때 처음으로 평의원회의와 동시에 브레인네트워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손재욱(가정 77) 전 회장이 역시 평의원회의와 동시에 브레인네트워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어져 왔지요.

- 그러면 기금 마련 추진을 위해 무슨 구상을 하시나요?

“그래서 일반 종신이사 회비 \$3000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종신이사를 일반,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일반은 \$3,000 내신분, 골드는 \$10,000까지 내신 분, 플래티넘은 \$50,000까지 내신 분, 다이아몬드는 \$100,000까지 내시는 분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네티컷에 계신 오인석(법대 58) 전 미주동창회 회장님이 거의 \$1만 이상을 내셨어요.”

- 다른 기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모교 발전기금이 있는데, 그전에 오인석 전

회장님께서 앞장 서서서 \$100만 모기기 운동을 했어요. 목적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여름방학 때 여기 미국에 초청하는 등 모교 발전을 위해서 미주동창회에서 돈을 모아 쓰자는 취지였지요. 현재 잔고가 약 \$13만쯤 됩니다. 서울대학교 본교에서 직접 모금하는 미주발전기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미주동창회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모금하는 거지요”

- 장학 기금은요?

“장학 기금은 없어요. 그냥 장학기금을 기부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올해에 처음했어요. 장학생 11명을 선발하듯, 사정을 고려해서 한명을 더 추가해서 총 12명에게 장학금을 선발해 수여했지요. 후배들이 너무나 우수해서 더 줄 일이 없는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 앞으로의 동창회 운영계획이랄지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중요한 것은 브레인네트워크이지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줄 어려운 것이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브레인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 하면,, 1999년에요. 그때 오인석(법대 58) 회장님을 비롯해서 20여명의 서울 총동창회와 미주동창회 손님이 모이셨는데 당시 총동창회 회장님이셨던 전 국회의장 김재순(법세) 회장님께서 ‘뉴잉글랜드 동창회가 잘된다네 한 번 가보자’고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당시 박경민(의대 53, 법세) 뉴잉글랜드 동창회장하고 보스턴에 돌아와서 준비를 해서 세미나도 하고 했지요. 이러한 것을 보고는 김 회장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여기 와서 보니까 뉴잉글랜드에 훌륭한 동문이 많은데 여기 싱크탱크를 왜 안 만드느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얼떨결에 ‘아 만들어야지’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싱크탱크 만드는 것이 쉽네요. 워싱턴에 싱크탱크가 많은데 건물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곰곰히 생각하고 있다가 2007년 뉴욕에서 평의원회의를 했는데 우리 몇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때 총동창회의 임광순 회장이 오시고,, 그 분이 ‘뭐 그거 하나 못 만들어?’ 하시더군요.

“제가 병원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급여가 (일반 병원에 비해) 많지 않아서 인지. 미국 사람 평균이 스마트폰이 많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미국 사람들과만 보다가 서울대 동문들을 보면 스마트폰이 너무 많아요.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 만나는데는 것에 빠진 것 같습니다. 동문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말도 통하고 그래서 열정과 애정을 갖게 됩니다.”

- 지난 1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모님이 너무 헌신적이십니다.

“이 사람이 도와주지만. 자기가 안 도와주면 망신당할까봐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아깝든 고맙지요. 동창회 운영 뒷받침을 이 사람이 맡아 주니까 고마워요”

윤상래 회장은 부인 김복섭 여사와 2남 1녀를 두고 있다. 한국에서 녹십자에 미생물부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1972년 도미했다. 캔사스에서 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1977년 보스턴으로 이주해 동물병원을 설립해 운영해 왔다. 윤회장이 직접 디자인하고 건축한 동물병원은 6000㏎의 크기에 배후에 23에이커의 숲도 있다.

- 브레인네트워크를 어떻게 발전시킬 구상이라도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우리가 더 브레인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싱크탱크로 하고 싶어요. 특히 여기

는 뉴잉글랜드인데 훌륭한 두뇌가 많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쪽으로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해요. 여기는 과학자들이 많아 모두들 연구를 하고 있으니 싱크탱크를 하더라도 비지니스 즉 벤처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합니다. 이걸 활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좋으면 투자할 사람을 구하고 거기서 자금을 받아서 계속 우리가 활동할 방안을 구축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싱크탱크가 되는 거지요.”

- 아, 기업과도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이야기군요.

“그것이 앞으로 과제입니다. 관심있는 사람을 찾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삼성, LG 등 기업을 참여시켜서 해야 하지요. 그들이 미주 동문들의 훌륭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게 말입니다. 아이디어만 좋으면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겁니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우리에겐 큰 도움이 되지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임기 끝나기 전에 그것을 해 놓으면 그것이 브레인네트워크가 되고 싱크탱크가 되는 거지요.”

- 싱크탱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치적인 것은 워싱턴 DC에서 브레인네트워크를 하고, 경제적인 것은 뉴욕에서 하고 하는 식으로 그러한 것이 합치되면 자동적으로 미주동문 싱크탱크가 되는 거지요. 그것이 앞으로 할 사업입니다. 여기 뉴잉글랜드에선 MT에 있는 과학자 등 다른 많은 분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내년의 브레인네트워크는 나노(nano)를 주제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어느 선배님이 “윤 회장이 평소 동창회 일에 너무 열심히 하여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동창회일에 특별히 열심히 하시는 동기말까 사연이 있습니까?

“제가 병원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급여가 (일반 병원에 비해) 많지 않아서 인지. 미국 사람 평균이 스마트폰이 많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미국 사람들과만 보다가 서울대 동문들을 보면 스마트폰이 너무 많아요.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 만나는데는 것에 빠진 것 같습니다. 동문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말도 통하고 그래서 열정과 애정을 갖게 됩니다.”

- 지난 1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모님이 너무 헌신적이십니다.

“이 사람이 도와주지만. 자기가 안 도와주면 망신당할까봐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아깝든 고맙지요. 동창회 운영 뒷받침을 이 사람이 맡아 주니까 고마워요”

윤상래 회장은 부인 김복섭 여사와 2남 1녀를 두고 있다. 한국에서 녹십자에 미생물부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1972년 도미했다. 캔사스에서 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1977년 보스턴으로 이주해 동물병원을 설립해 운영해 왔다. 윤회장이 직접 디자인하고 건축한 동물병원은 6000㏎의 크기에 배후에 23에이커의 숲도 있다.

## 제27차 평의원회 자체 결산 모임

【기사 배지선 총무, 뉴잉글랜드】 지난 2018년 7월 7일 토요일, 윤상래 회장님을 포함한 미주동창회 임원 10명이 동창회 사무실에 모여, 2018년 6월에 있었던 제27차 평의원회 자체 결산 모임을 가졌다.

행사 진행에 있어서는, 시간 관리의 부족과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강연과 평의원회가 길어지면서, 장소 이동 및 행사장을 셋팅할 시간이 촉박하였고, 회의 때 회원들이 발표하거나 질의할 시간이 모자랐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인력 부족 문제에 있어서는, 행사장 안내 및 만찬 시 VIP 안내, 아침 식사 안내 등이 부족하였음이 지적되었으며, 회의 시 floor monitor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행사장의 장비나, 실내 환기 등도 섬세히 신경 쓸 수 있었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외, 행사 진행 관련 평가에서는 회의 바인더의 경우, 바인더를 준비할 때 손이 많이 가고 종이와 낭비되는 것을 고려하여, 개선행방안으로 15대 회장단과 협의하여 콘텐츠를 줄여보는 방안이나, 이메일로 PDF는 사전 배포하고, 행사 당일에는 주요 내용만 프린트하여 주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회의 시 투표는 평의원이 아닌 동문도 회의 참석은 할 수 있으나, 절대 투표에 참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본교에서 학생이나 강사를 초빙할 경우, 순조로운 준비를 위해 지역 위원이 책임연락책이 되어 소통하여야 할 것이 이야기되었다. 재무 평가에 있어서는, 참석 동문들께서 의외로 많은 기부를 해 주셔서 감사했다는 김재성 재무의 감사말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 이상은 사무총장은 총동창회 행사이든, 지역 동창회 행사이든 연세 드신 동문들이 많이 계시므로 항상 이머전시(Emergency) 플랜이 있어야 한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었다. 내년의 더욱 성공적인 제28회 평의원회를 기대하며, 깊은 반성과 건설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더불어 이번 행사를 준비한 임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하고, 앞으로 남은 1년을 더 알차게 보낼 것을 약속하며 자리를 마무리하였다.

위의 글은 7월 7일 임원 회의에서 거론된 6월 16일 평의원 회의의 평가이다. 배지선 총무의 글에 당연히 동의하나 몇가지 점에서 회장으로서는 의견을 더해 보고자 한다.

본인은 1999년 6월 19일 뉴욕에서 열린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오인석 회장님 주재)에 처음 참석한 후 거의 20여 년을 4년 정도만 빠지고 항상 참석하였다.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을 만나는 교제도 되고 또 배울 것이 엄청나서 회의에 참석하는 즐거움 또한 컸다.

윤상래 (수의대 62입) 미주 동창회장.

이번의 평의원 회의는 결론적으로 내가 지난 2018년 7월 7일 토요일, 윤상래 회장님을 포함한 미주동창회 임원 10명이 동창회 사무실에 모여, 2018년 6월에 있었던 제27차 평의원회 자체 결산 모임을 가졌다. 이번의 평의원 회의는 결론적으로 내가 지난 2018년 7월 7일 토요일, 윤상래 회장님을 포함한 미주동창회 임원 10명이 동창회 사무실에 모여, 2018년 6월에 있었던 제27차 평의원회 자체 결산 모임을 가졌다. 이번의 평의원 회의는 결론적으로 내가 지난 2018년 7월 7일 토요일, 윤상래 회장님을 포함한 미주동창회 임원 10명이 동창회 사무실에 모여, 2018년 6월에 있었던 제27차 평의원회 자체 결산 모임을 가졌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인원(도우미)을 충분히 배치하려 했으나 임원 중 갖난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동문도 있었고,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 참석치 못한 동문, 지역 관광 등으로 도우미를 나누다 보니 회의장 운영, 안내 등에 좀 차질이 생겼다. 다음 해에는 뉴욕으로 행사장이 옮기니 회원수가 엄청나게 많은 뉴욕 동창회는 우리보다 더 잘 핸들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6월 16일 평의원 환영 만찬시의 강연은 너무나 좋았고 과학 방면이나 미주의 미래 이야기는 너무나 흥미 있고 공감이 가는 강연으로(fascinating stories), 하나의 흥미 있었다면 강연이 길어서 인지 뒷자리에서 소음이 들려 온 것이다.

홍선례(음대 70입) 문화국장이 이미 글을 썼으나 국악 공연은 참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5명의 국악팀이 SF 공방에 역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세한 내막은 분명치 않았으나 마침 윤기철 동문의(대 65 입)의 사위 김광현 (수의대 62입) 김동철 동문 (아드님) 씨가 SF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것을 기억, 연결이 되고 또 ‘한국 역사관 뚱’이라는 북가주 회장 임희례 (간 73입) 동문과 연락이 되어서 ‘국악단 구출 작전’을 세워놓고 아침을 기다리자 하였으나 2시간 후의 전화는 국악단 전원이 풀려났다는 것이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내일 새벽에 그들을 공방에 영접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었으니 흥분 때문인지 새벽 3시까지 잠이 오질 않았다. 그렇게라도 와서 그처럼 훌륭한 국악 공연을 해주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6월 17일 아침에는 이용락 박사님, 이재진 교수님, 노명호 선배님 등을 대동하고 26명이 메인주에 올라가 점심 후 그 유명한 Nubble Lights 를 보면서 아이들처럼 기뻐하시는 노령의 선배님 부부를 보는 것은 가슴이 뜨겁도록 좋았다. 이튿날인 월요일 조식 후에는 남아 계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교통편을 도와야 드리고 나니 큰일을 마친 듯한 기분으로 우리도 호텔을 나와 귀가하였다.

윤상래 (수의대 62입) 미주 동창회장.





김기훈 (상대 52)

### 한글과 영어

나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모국어는 별 어려움도 없이 사용하는데 외국인이 질문하면 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첫째, 시간의 표시: 가령 11:15로 되어 있으면 “열한 시 십오 분”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말을 배우기 시작한 외국인은 “왜 열한 시 열다섯 분, 또는 십일 시 십오분”이 아니냐?라는 질문이다. 어쩌어서 시간은 우리말 숫자요, 분은 한자의 숫자로 되어있는지? 그리고 24시나 물건을 셀 때도 처음 네 자리 숫자는 한 (= 1), 두 (= 2), 세 (= 3), 네 (= 4)로 생각이 된다. 예컨대 열한 시, 스물두 살, 마흔세 개, 이른네 개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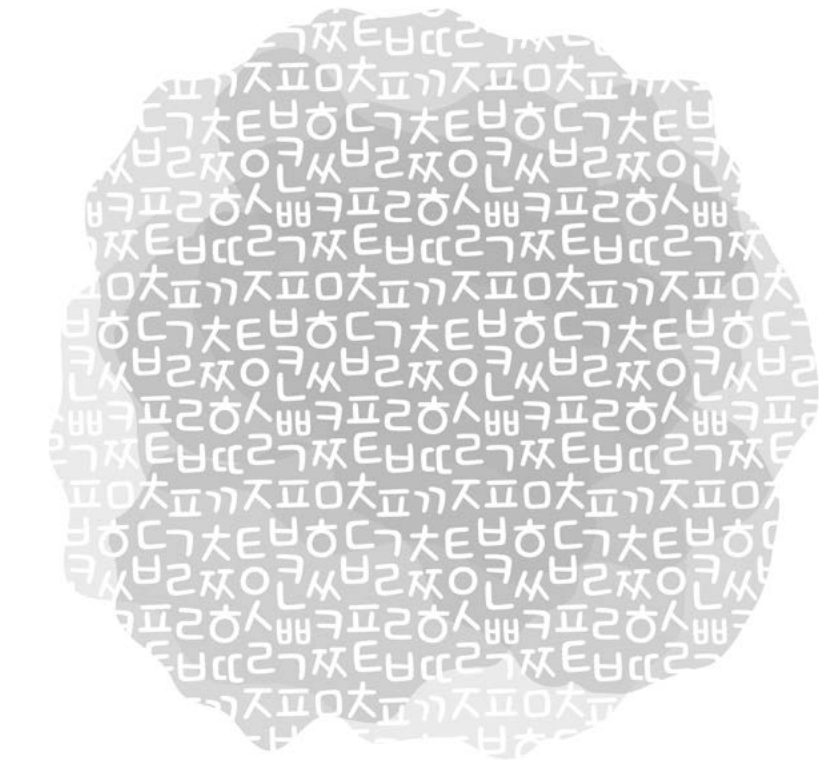
둘째, 우리 몸에 걸치는 것을 영어로는 단순히 put on 하는데 우리말과 일본어에는 쓰다 (모자), 끼다 (장갑, 반지, 안경) 단 안경은 일어서서 걸친다라고 표현), 입다 (내의, 잠바, 옷, 우의, 코트 등), 신다 (신, 양말, 구두, 슬리퍼), 매다 (넥타이, 웃고름, 허리끈), 차다 (시계, 권총, 수갑), 꽃다 (비녀, 팬) 등 너무나 복잡다양하다. 하기가야 “매다”는 “풀다”라는 예외가 있고 나머지 모든 행동의 반대는 “벗다”로 단순화된다.

셋째, 영어에는 명사에 S를 붙여 복수화한다. 약간의 예외가 있지만 Y로 끝나는 명사는 ie로 변화되어 S가 뒤따른다. 한글에는 보통 복수와 단수의 구별이 엄격하지 않다. “여기에 책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한 권인지 여러 권인지 번역하기가 힘들다. 나자 신도 유학 초기에 즉각 복수를 배운 경험이 있다. 어느 날 저녁식사 후, 미국 친구와 함께 특별강연에 가기로 했다. 기숙사를 떠나기 전 “I have to brush my tooth”라고 했더니 그가 불췌 “Which one?” 하고 묻는 것이 아닌가! 아차 그제야 곧 “My whole teeth!” 하고 정정하였다. 즉석 레슨이었다. 그리고 명사 끝에 “들”을 첨가하여 복수가 되는데 어찌 하여 할국말에는 부사에도 “들”을 붙이느냐고 외국인이 묻는다. “어서들 오십시오.” “잘 들었니?” “많이들 접수십시오.” 등. [독자 여러분의 시원한 설명을 고대합니다.]

영어의 2인칭 You만큼 편리한 단어가 없다. 하나님을 위시하여 임금, 대통령, 교수(선생, 부모, 형제자매, 친척, 처음 만나는 사람 등 모두가 이 단어로 통한다. 하지만 한글이나 일본말에는 역사적으로 장유유서(長幼有序)라는 수직적 대인관계의 전통하에서 가족을 비롯하여 나이, 직위, 친분, 인척관계 등 고유의 대명사가 존재한다. 때로는 직장, 교회, 사회단체, 군대의 계급이나 직위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일상의 대화에도 높임말, 보통말, 낮춤말로 상대에 따라서 잘 구별해야 된다. “나는 아이나, 당신은 어른입니까?”라는 외국인의 질문도 있다.

또한 일제시대의 강점기의 잔재로 남편은

아내에게 반말이지만 아내는 높임말을 쓰는 것이 정착되어 버렸다. 더러는 아내에게 “어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 결혼 후 에 영어는 In-law로 단순한데 우리말에는 각각 명칭이 다르다. 한 때 가진이 아는 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돈아(豚兒)라고 지칭한 사실을 보고 언짢은 느낌을 가진 적이 있다. 이렇듯 자기나 가족을 비하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있다. (심심하신 분은 이런 점을 상세히 다룬 척독대방(尺牘大方)이라는 구식의 “편지 쓰는 법”을 참고하시기를.)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글을 배우지 않았던 딸아이가 유치원에 갈 무렵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도록 가르쳐 주었다. 다음 날 성 (= 감)을 서보곤했으면서 “아빠, 칠십일 (= 7) 아 해 할국말에는 부사에도 “들”을 붙이느냐고 외국인이 묻는다. “어서들 오십시오.” “잘 들었니?” “많이들 접수십시오.” 등. [독자 여러분의 시원한 설명을 고대합니다.]

미국인에게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자랑하고 나서 “영어의 자모는 26자인데 한글은 24자 밖에 없다.”라고 했더니 “어느 두 글자를 안쓰느냐?” 라는 반문이다. 그의 생각에는 한글이 영어의 Alphabet 에서 두 글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된 듯 그리고 컴퓨터에 모음은 오른손, 자음은 왼손으로 입력이 되어 편리하다고 추가하였다. 한글을 배우고 사용할 때마다 세종대왕의 탁월한 선견과 공적을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최만리(崔萬理), 정창손(鄭昌孫), 등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를 무릅쓰고 집현전의 학사 성삼문(成三問), 신숙주(申叔舟), 최 항(崔 奘) 등 공신들의 수고로 한글을 창조하신 업적은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사에도 자랑할 만큼 길이 남을 위업이다.

**영어**  
영어는 웃음으로 시작하여 울음으로 끝나고, 독일어는 울음으로 시작하여 웃음으로 끝난다. 라는 표현이 있다. 미국에 온 지도 회갑년이 지났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것이 영어이다. 참고대를 영어로 하거나, 쉬운 것 같지만 Yes와 No, Come and Go를 옳게 구분할 정도면 어지간히 능숙하다는 평이다. 우리말로 옳기는 것도 만만치가 않다. 우선 커피가 오래되어 dark하다는 것을 “커피가 어둡다”라고 한다든지, This machine is not working을 “이 기계는 실업이 되었다.” This rice is old를 “이 밥은 늙었어.” 따위가 있다. 서울에 가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친구 딸이 처음으로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왔는데 어순이 영어식이었다. “나 사랑(=사랑)해 당신, 엄마;라고. 그래도 대견스럽다는 모성애가 땀땀 담긴 소감을 들었다. 착하다. 그리고 Why? 대신에 How come? 이라고 질문하는 수가 있다. 한 외국 유학생이 늘 “By plane.” 이라고 답을 했었다. 어떻게 미국에 왔느냐 라고 해석한 듯.

아들 가족이 사는 미국에 두 달 예정으로 어머니가 방문했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바로 귀국하였다는 얘기가 있다. 듣자 하니 아들이 상당한 빚을 지고 있는 듯하여 더 이상 머물기가 민망스러운 느낌 때문이라는 후일담. 사연인즉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가 되면 머느리가 차를 운전하여 “아들 빚갚으러” 간다는 인사를 했다는 것. 기실 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아이들을 교포들이 데리러 간다는 뜻으로 보통 “Pick up” 하러 간다고 말하는데 시어머니는 “빚 갚으러”가는 줄 잘못 이해한 것이 그 이유였다.

늘은 일본사람들의 영어 발음이 신통하지가 않다. 이런 일본인 교수에게 영어를 배운 옛날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발음이 어색했다. 요즈음 젊은 세대는 발음이 상당히 정확하고 유창하다. 약 반 세기 전 일본에서 미국의 합작회사에 파견된 기사를 위해 통역을 맡은 적이 있다. 어느날 분명히 영어일텐데 “호태이호”라고 자주 반복하기에 알아듣지 못해서 물어보았다. 종이에 44라고 써주었다. 과연 F 발음이 어려운 것을 실감하였다. 추가로 미국에서는 흔히 T를 R같이 발

음 (Water 를 “워어라”라고 하듯) 한다고 설명했더니 그 후부터 “호태이호”가 “호래이호”로 바뀌었었다.

한 때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 (田中角榮, 1918-1993) 총리가 방미 중 딱 한 번 꼭 영어로 연설을 해야될 형편이었다. 일본어는 모든 자모가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자음으로 끝나는 외국어 단어에도 모음을 붙인다. Boy and girl 을 “보오이 앤드 가아루”라고 읽는다. 나의 성도 일본에 가면 “감”이 나이고 “기무”가 된다. 어쨌든 총리의 연설이 끝나고 청중의 한 사람 이 동료에게 “난 일본말이 영어와 비슷한 사실을 처음 알아!”라고 평했다는 것.

나의 나이가 70이 되었을 때 가족이 고희 (古稀)를 축하해 주었다. 젊은 한국 유학생들도 초청하여 식사를 같이 하였다. 한 학생이 “고희라면 일본사람들이 Coffee를 그렇게 발음 하잖아요.”라는 주석을 달아준 적이 있다. 일본어와 한글에는 f 와 th음이 없어서 불편한 점도 있다. 미국인과 대화하는 중에 자기 아내를 “마이 와이푸”라고 소개하는 것이 어쩐지 듣기가 거북하다. 침도 된다. 개나리(forsythia)의 발음을 옳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대선을 보도하기 위하여 일본의 대표적인 일간지의 특파원이 방미하였다. 중년 이상의 일본사람들의 공통점은 R와 L을 잘 구별 못하는 경향이 있다. 신사, 숙녀들이 가득 차있는 선거본부에 들어가서 곧 가까이 있는 미국인에게 큰 목소리로 자기로서는 “How is his election?”이라고 질문을 했지만 erection이라고 발음해버렸다는 진담이 있다. 한글에는 e이 R와 L의 구별이 잘 되어 있다. 딸기 (L)와 딸로 (R), 할머니 (L)와 할아버지 (R) 등.

### 수학

일본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늙은 수학교수가 기차로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가고 있었다. 차장에게 보스턴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물었다. “215 마일입니다.”라고 답했다. 잠시 후 이번에는 보스턴에서 뉴욕까지는 거리가 얼마인가 물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같은 215마일입니다.”라는 회담.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반응. “크리스마스로부터 새해 첫날까지는 한 주간인데 정초부터 크리스마스까지는 거의 1년이 되거늘!”

통계학 교수가 강의를 하였다. “숫자는 속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만약 한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보름이 걸린다면 열다섯 사람이 같이 일하면 하루만에 완성한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그럼 360명의 목수가 한 시간 안에, 그리고 21,600명의 목수는 1분 만에 집을 완성한다는 말입니까?” 한 사람이 한쪽 발을 뜨거운 스토브에 얹고 다른 발은 얼음방에 들어있다면 통계학자는 그가 평균해서 대체로 따사한 자리에 있다고 설명하리라.

혹시 쓸쓸한 여자와 외로운 남자가 서로 만나게 되면 수학자는 고독한 사람이 둘이라고 설명하겠지만 나는 한 쌍의 행복한 부부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원익 (문리 73)

<시조>

### 귀향 열차

첫 서늘길 원행열차 하루가 저무는데 새 세상 내다보며 구겨앉은 창너머로 깔리는 땅거미 속에 떠오르던 작은 불씨

멀리서 갖피어나 이윽고 다가오다 재빨리 스쳐가 다시 피어 다가오던 하나 둘 그 밤의 불빛 사그라져간 나날들

이제사 되돌아와 저 들만 가로질러 그날 밤 가던 그 길 되짚어 달리는데 꽤액 꽤 기적도 없이 미끄러지는 한 세월

드러운 모니터는 혼자서 전을 펴고 서늘한 밤 고즈넉한 우주선의 비행처럼 혹성을 찾는 길목엔 가로등도 없다던가

손전등 건전지에 남아 있는 전류처럼 그 밤의 어린 불빛 찾아 창밖에 켜려는데 바깥은 눈부신 어둠 내내 틈을 놓친다

(2018년 미주중앙일보 신인문학상 시/시조 부문佳作)



강봉곤 (자연대)

### “뇌에서 ‘기억이 저장되는 곳’ 세계에서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억연구 외길’ 국가과학자  
치매치료에 새 이정표 제시

우리는 종종 기억을 ‘간직한다’고 말한다. 뇌에서 소중한 기억과 추억을 간직하는 곳은 어딜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소설 한 구절이 떠오르지만 이제 기억만큼은 예외가 될 것 같다. 강봉곤(미생물 80-84) 교교 생명과학부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 기억연구단이 세계 최초로 뇌에서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인 기억저장 시냅스를 찾아낸 덕분이다.

시냅스는 두 신경세포(뉴런)에서 나뭇가지처럼 뻗어나온 돌기들이 이루는 틈새다. 신경세포들끼리 신호를 주고 받는 통로다. 크기는 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세포 하나당 수만개에 달한다. 1,000조 개의 시냅스가 사람의 뇌 속에 있다.

70여 년 전 심리학자 도널드 헵은 시냅스에 기억이 저장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가설에 따르면 학습에 의한 시냅스의 변화가 곧 기억의 물리적 실체다. 이 대단한 통찰은 오랜 시간 검설처럼 여겨져 왔지만 실험으로 직접 확인된 적이 없다. 방대한 시냅스에서 기

역에 참여하는 것만 골라내거란, 백사장에서 모래알 찾지만큼 어려웠다.

강 교수 팀은 10년간 연구 끝에 신경세포의 시냅스를 종류별로 구분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로 기억이 저장되는 시냅스의 위치를 명확하게 찾아내고 지난 4월 사이언스지에 결과를 공개했다. 6월 26일 관악캠퍼스 연구실에서 만난 강 교수는 “오래된 학설을 증명하겠다는 결심이 발단이 됐다”고 했다.

“기억이 저장된 장소를 찾는 근래의 연구들은 모두 신경세포 수준이었습니다. 기억 저장에 관여하는 세포도 불과 수 년 전에 밝혀졌죠. 하지만 뇌 기능의 최소 단위는 신경세포가 아닌 시냅스입니다. 그동안 간접적인 증거는 많았지만, 시냅스가 기억 저장에 관여하는 걸 눈으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 교수 팀이 개발한 신기술 ‘dual-eGRASP’는 신경세포가 활성화될 때 그 말단의 시냅

### 황보민영 미주동창회 총무 환송식



왼쪽부터 정선주 (간호 68), 박영철 (농대 64), 이상운 (수의 87), 윤상래 회장 (수의 62), 황보민영 (공대 03), 이정수 (공대 71), 이영인 (사대 74), 정태영 (문리 71), 김재성 (공대 87) 등문.

미주동창회는 그동안 헌신봉사해왔던 황보민영 총무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로 이주함에 따라 지난 7월 7일 동창회 사무실에서 환송 모임을 가졌다. 동창회는 샌디에고에 가서도 변함없는 동창회에 대한 지원과 사랑을 보내주기를 요청하고, 장도(壯途)를 빌었다.

스 부분이 두 가지 형광빛으로 표시되도록 만들었다. 공포 기억을 저장한 생쥐에게 이 기술을 적용해서 기억을 관장하는 뇌 부위인 해마를 살펴봤다. 그 결과, 해마의 기억 저장 세포 말단에서 많은 시냅스들이 활성화를 의미하는 노란 형광빛을 띠었다. 해당 시냅스들이 기억 저장에 관여했다는 신호다. 동시에 시냅스 부위에 있는 돌기들의 크기도 커졌다. “강한 기억일수록 더 많은 시냅스가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동참했는데 이는 기억이 강할수록 시냅스 연결이 강해졌음을 뜻한다”는 설명이다. 논문 속 사진엔 현미경으로 관찰한 시냅스들의 변화가 또렷하게 포착돼 있다.

“연구 결과를 국제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자신도 도전했다가 기술부족으로 실패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학습과 기억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라면 누구나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연구 결과를 국제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자신도 도전했다가 기술부족으로 실패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학습과 기억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라면 누구나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강 교수는 뇌과학계 대표 석학이다. 지난 30년 간 그의 회두는 오로지 ‘기억은 어떻게 우리 뇌에 저장되는가’였다. 첫 연구 대상이 된 것은 바다달팽이의 일종인 군소. 제주 출신인 그는 모교에서 미생물학 전공으로 석사까지 마친 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신경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과정 지도교수가 박사학위를 연구해 노벨상을 수상한 에릭 캔델 교수였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신경세포를 가진 군소는 기술이 부족한 시절 좋은 연구 대상이 됐죠. 동물을 연구하는 건 사람의 뇌를 직접 연구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학의 환원주의 덕분이기도 해요. 쪼개고 쪼개서 근원까지 연구실에서 만난 강 교수는 “오래된 학설을 증명하겠다는 결심이 발단이 됐다”고 했다.

“연구 결과를 국제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자신도 도전했다가 기술부족으로 실패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학습과 기억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라면 누구나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1994년 모교에 부임해 연구를 시작할 때 전국의 어시장을 헤매며 군소를 찾던 일도 이젠 추억이 됐다. 군소와 생쥐 연구를 통해 포유동물의 학습과 기억에 관여하는 분자 메커니즘을 규명했고, 기억을 떠올릴 때 시냅스에서 ‘유비쿼틴 단백질’ 분해가 회상을 돕는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사이언스, 네이처, 셀 등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180여 편에 이른다.

2012년 국가과학자로 선정되면서 강 교수는

이그는 신경생물학 연구실은 ‘서울대 기억연구단’으로 뇌와 기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한 연구 과정에서도 좋은 결실을 낸 비결은 “학생들”이라는 그다.

“학생들이 워낙 똑똑하고 동기부여가 잘 돼 있었어요. 이번 논문의 공저자 중 제1저자인 최준혁 박사가 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5년은 연구가 잘 안 돼서 포기할 뻔도 했는데 어떤 오기로 해낸 것 같아요. 기초연구는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자세가 중요함니다.” 연구실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다시 생각해보라”며 짐짓 엄포를 놓기도 한다. “뻔한 건 기초과학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천억 인류가 몰랐던 새로운 걸 찾아내는 일이 쉬울 리 없죠. 열 번 도전해서 아홉 번 틀려도 감내할 수 있는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그는 “기억이 저장되는 시냅스를 찾아낸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음 목표는 “역으로 특정한 시냅스의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저해했을 때 기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 일종의 검산 과정이다. 특정한 기억저장 시냅스를 강화하거나 약화시켜서 기억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치매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기억과 관련된 질병 치료에도 새로운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 기술은 더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며 담당하게 새로운 도전을 시사했다.

인터뷰 다음날 강 교수는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다. 수상소감에서 “뇌과학 용어조차 생소한 시절에 시냅스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때 일반생물학 책에서 신경생물학 비중이 제일 적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많겠다 싶어 뛰어들었죠. 지금 보기에 어렵고 인기 없는 분야도 수십 년 후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취미를 묻자 강 교수는 골똥한 생각 끝에 “과학이 취미”라고 답했다. 현재 국가과학자이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학술지 ‘Molecular Brain’ 편집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경암학술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장, 대한민국의학원장을 받았다. 박사진 기자





온기철 (65 의대)

## 대원군, 민비 그리고 서재필

이 세사람은 19 세기 중반에서 19세기 말까 지 다사다난했던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민비가 어떻게 시해를 당하게 되는가에 맞추겠습니다. 민비는 이에 관계가 상충하는 대원군과 개화당을 정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세력은 일본과 결탁하여 민비를 제거하게됩니다. 서재필은 개화당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으로써 미국에서 의사가 되었고 미국시민이 되어 생애를 마친분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그가 어느때보다 어려운 그 시기에 어떻게 인생을 꾸려갔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19 세기 중엽은 어떤 세상이었던가?

1840-1860 년 사이에 벌어진 12 차 아편전쟁은 세계의 질서가 중화 - 오랑개 구도에서 문명-야만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교를 바탕으로 농경 사회를 이룩한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의 최강국이었고 세상의 중심은 중국(중화)이고 다른 나라는 모조리 오랑개라는 개념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 구조의 하나로 중중국-중속국 관계로 중국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계몽사상과 산업혁명을 거쳐서 근대국가로 변신 합니다. 중국의 낡은 제도는 부패해 갔고 산업화된 신흥국미국가들은 문명국-야만국 구도를 앞세워 침략전쟁을 시작합니다. 자기들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문명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스려야 한다는 이론으로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 했습니다. 쓸어져가는 공룡 중국은 구미 국가의 이권 찬탈로 외환을 잃고 있었던 것만이 아니고 안으로는 수많은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난리가 태평천국의 난입니다. 홍수환은 자신이 하늘의 둘째 아들임을 자칭하고 예수교의 평등교리를 앞세워 남녀평등, 토지균등 분배등을 주장하고 약 14년 동안 중국의 거의 반을 지배했던 사건입니다. 이 난을 제압한 인물이 이홍장입니다. 이 공으로 이홍장은 청나라 황제 다음으로 높은 권력 자가 됩니다. 그리고 망해가는 청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개혁을 시작하는데 이를 양무운동이라고 합니다. 유교를 바탕으로한 문화와 제도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군사지식과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개혁을 하고자 했습니다. 조선의 민비-온건 개화파가 이 양무운동을 답습하게 됩니다.

반면에 일본은 명치유신을 단행합니다. 쇼군이 통치하던 막부정권은 천황을 정권의 전면에 내세워 입헌군주제도를 도입하고 군사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서양과 똑 같은 나라를 만드는 개혁을 했습니다. 양무운동이 절름발이 개혁이었다면 명치유신은 완전무결한 개혁이었습니다. 이 개혁을 주도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조선의 급진 개화파는 명치유신같은 개혁을 조선에서도 이룩하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이와같이 중국의 이홍장,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등장할 무렵 조선에서는 흥선 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합니다. 1800년 정조의 죽음은 조선을 망국으로 만드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실학을 바탕으로한 개혁이 정조가 죽음으로써 완전히 좌절되었습니다. 그리고안동 김씨의 세도정치가 60여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씨 왕조라기 보다는 김씨 왕조였습니다. 대원군은 이 씨왕권을 되찾으려는 기회를 호시 탐탐 노리고 있다가 철종이 죽을 무렵 안동 김씨와 대립관계에 있던 조대비(선정 왕후)와 접촉하여 12살 난 자기 둘째 아들을 고종으로 옹립하고 자신이 섭정에 나섭니다. 1864년 1월이었습니다.

정권을 거머쥔 흥선 대원군은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로 인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기 위한 부당한 세금제도를 바로잡고 매관매직을 금지했으며, 봉당의 진원지이고 백성을 괴롭혔던 서원을 철폐하여 백성들의 삶이 많이 증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들은 단순히 영,정조 시대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 불행하게도 시대가 요구 하는 개혁은 옛것을 복구하는 수구보수적인 것이 아니고 서양문명을 받아들여 산업 사회를 만드는 좀 더 진취적인 것이어야 했습니다. 대원군의 개혁은 이웃 나라인 일본의 명치유신은 물론 대국 청나라의 양무운동 보다도 훨씬 미흡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군은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 쇄국 정책, 제너럴 사만호 사건과 박규수

청나라, 조선, 일본은 모두 오랜 동안 쇠국이 기본 외교정책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서양 국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무너져서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형 천주교를 받아드리면 신분제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대원군은 이러한 수구적인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원군은 우선 내치를 안정 시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한 다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 하며 서양국가들의 통상요구를 거절했습니다. 1866년 8월, 대동강 물은 장마로 크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미국 상선 General Sherman 호는 그 물을 타고 평양성 깊숙히 들어왔습니다. 상선이지만 대표와 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서 해적선으로도 의심을 받았습니. 선원들이 주민들에게 총을 쏘는 등 폭력을 가하자 분노한 주민들이 관군과 합세하여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강물이 줄어 들어 배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평안 감사 박규수는 화공으로 배를 공격하여 배에 불이 붙자 선원 전원이 물에 뛰어들어 사망했고 박규수는 배의 엔진을 노획했습니다. 박규수는 이조 참판을 지내는 등 당에서 높은 벼슬을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중앙에서 중앙에서 높은 벼슬을 하려면 지방 근무로 세상을

을 흑자로 돌려 놓은 것을 고종과 민비는 적자로 만들었고 이를 매꾸고자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했습니다. 자연히 민비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은 높았고 대원군의 인기는 상승했습니다. 권좌에서 물러난 대원군은 끈질기게 민비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공작을 시도합니다. 민비숙소에서 폭탄이 폭발했지만 민비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선물 보따리에 폭탄을 넣어 민승호의 집에 보내어서 이것이 폭발하여 민승호를 비롯한 일가가 사망했습니다. 대원군의 형 흥인군 집에 불이 나는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 대원군 집에 머물렀던 식객이 주도 한 것으로 후에 밝혀졌습니다. 집권한 고종과 민비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나라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한국 최초의 통상 조약인 병자 수호 조약을 1876년에 일본과 체결했습니다. 이는 지독한 불평등조약으로 일본의 권리만 명시하고 조선의 권리나 일본의 의무는 전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민비의 등장과 고종 친정 시작

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하니 2년 만에 민자영은 고종의 비가 되어 궁중으로 들어왔습니다. 장희빈의 음모로 많은 고초를 겪었던 숙종비 인현 왕후 집안인 여흥 민씨 민치록의 딸이었습니다. 외척에 의한 세도정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 부모등 친척이 없는 것을 장점으로 여기고 대원군의 부인과 같은 집안인 여흥 민씨를 택한 것입니다. 당시 고종은15세, 민비는 16세 였으나, 민비의 권력욕과 그 것을 성취하기 위한 머리 굴리기는 대원군 못지 않았습니.

### 민비의 또 하나의 정적 개화당의 탄생

1866년 민자영이 왕비가 되던 해는 대원군이 무려 8000명의 천주교 신자와 프랑스 신부 9명을 죽이는 천주교 박해가 있었고 이로 인한 병인양요, 제너랄 셔만호사건 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흥 민씨인 대원군의 부인에게는 민승호라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민비는 민승호를 자기 아버지 민치록의 아들로입적 시키고 자신의 오라비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권력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원군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반 대원군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조대비와 연대하여 권력을 차지한 대원군은 풍양 조씨에게 충분한 대접을 해주지않았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조성하를 포섭했습니다. 흥선대원군 형 흥인군 이치응도 민비 세력이 되었습니다. 대원군이 개혁을 위해서 남인과 북인을 선호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노론 계인 안동 김씨 김병기를 포섭했습니다. 무엇 보다도 중요한 반 대원군 세력은 유학자들이었습니다.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봉당의 아지트였고 백성을 착취하는 전위부대였던 서원을 철폐한 대원군은 유학자들의 원수였습니다.

김옥균, 유길준, 박용호, 박영교, 홍영식, 김윤식, 서광범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었고 그중 김옥균이 이들의 보스였습니다. 그는 노론계 안동 김씨 김병기의 양자였습니다. 시문, 글씨, 그림에 뛰어나고, 매우 사교적이어서 위로는 정승 판서와 친했고 아래로는 시장 잡배와 어울렸다고 합니다. 가무, 음주, 주색 잡기, 바둑, 투전, 골패에도 탁월한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박규수는 그에게 중화 사상이 허구임을 가르쳤고, 개화파들이 청과의 관계 단절을 외치고 다니게되는 믿 거름이 되었습니다. 박영효는 철종의 딸 영혜옹주의 남편이었다. 박규수는 고종에게 박영효를 부마로 삼을 것을 추천 했습니다. 서광범은 이조 참판 서상익의 아들이었습니다.

대원군 섭정 10년, 고종의 나이 22세가 되자, 그중 지도자 격인 최익현을 포섭 하여 대원군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게 합니다. 물론 이 상소는 반 대원군 세력의 지지를 받았고 이것을 근거로1873년, 대원군은 권좌에서 물러나고 고종-민비가 정권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 영흥민씨 세도정치와 대원군의 반격

민비의 처가 여흥 민씨들은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보다 더 심한 매관 매직, 뇌물 수수 등 온갖 비리로 권력 유지와 축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한 민생고는 이루 말 할 수 없었다고합니다. 민비와 고종 사이에서 난 왕자와 공주들은 날자마자 죽거나 병약했습니다. 민비는 이를 해결해 보고자 무당을 불러서 궁중에서 굿을 하거나, 전국 유명한 사찰에서 불공을 드렸습니다.민비는 무당과 사찰에 막대한 국고를 낭비했습니다. 민비는 극과 풍악을 좋아하여 거의 저녁마다 잔치를 벌렸다고합니다. 밤잠을 설친 고종은 낮에 정사를 보면서 꾸벅 꾸벅 졸았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국고를 썼습니다. 대원군이 궁중 재정

을 흑자로 돌려 놓은 것을 고종과 민비는 적자로 만들었고 이를 매꾸고자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했습니다. 자연히 민비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은 높았고 대원군의 인기는 상승했습니다. 권좌에서 물러난 대원군은 끈질기게 민비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공작을 시도합니다. 민비숙소에서 폭탄이 폭발했지만 민비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선물 보따리에 폭탄을 넣어 민승호의 집에 보내어서 이것이 폭발하여 민승호를 비롯한 일가가 사망했습니다. 대원군의 형 흥인군 집에 불이 나는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 대원군 집에 머물렀던 식객이 주도 한 것으로 후에 밝혀졌습니다. 집권한 고종과 민비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나라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한국 최초의 통상 조약인 병자 수호 조약을 1876년에 일본과 체결했습니다. 이는 지독한 불평등조약으로 일본의 권리만 명시하고 조선의 권리나 일본의 의무는 전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민비의 또 하나의 정적 개화당의 탄생

제너럴 사만호 사건 때 평양 감사로서 대표와 총으로 무장 한 미국 상선을 제압했던 박규수는 개화당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그의 생각은 이홍장의 양무운동과 같이 전통적인 유교를 바탕으로한 문화와 제도를 유지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온건 개화파와 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양반 세도가들의 자식들을 자기 집에 모이게 하여 북경에서가지고 온 새로운 서양 문물과 책을 소개하는 등 서양 지식을 그들에게 전수하였습니다.

김옥균, 유길준, 박용호, 박영교, 홍영식, 김윤식, 서광범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었고 그중 김옥균이 이들의 보스였습니다. 그는 노론계 안동 김씨 김병기의 양자였습니다. 시문, 글씨, 그림에 뛰어나고, 매우 사교적이어서 위로는 정승 판서와 친했고 아래로는 시장 잡배와 어울렸다고 합니다. 가무, 음주, 주색 잡기, 바둑, 투전, 골패에도 탁월한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박규수는 그에게 중화 사상이 허구임을 가르쳤고, 개화파들이 청과의 관계 단절을 외치고 다니게되는 믿 거름이 되었습니다. 박영효는 철종의 딸 영혜옹주의 남편이었다. 박규수는 고종에게 박영효를 부마로 삼을 것을 추천 했습니다. 서광범은 이조 참판 서상익의 아들이었습니다.

### 서재필, 개화파의 일원이 되다.

1864년 1월7일에 서재필은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났고 보성은 그의 외가였습니다. 서재필 부모는 곧 충청남도 논산으로 이사하여 7살이 되던 해에 한양에 있는 6촌 서광하의 양자가 되어 한양에서 살게 되었는데, 서광하의 부인은 안동 김씨 김윤순의 딸이며 구한말 대신 김성근의 누나였습니다. 서재필이 낳던 해와 달은 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한 해와 달과 우연히 일치합니다.

유년기의 서재필은 동료들 보다 키가 큰 편이었고 싸움을 잘 했으며 명석했고 자존심이 강한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외삼촌 김성근의 집에서 과거 시험 공부를 했는데, 김옥균, 서광범등이 이 집에 드나들었고 서재필은 이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옥균은 서재필을 총애했습니다. 김옥균을 통해 박영효도 알게 되었습니다.

>> www.snuaa.org (나눔의 예세이로 계속)



이종호 (인문 81)

## 뉴욕타임스가 뽑은 한인 여기자

#. 뉴욕타임스는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고급지의 대명사다.

는조는 대체로 진보적이다. 진보적이란 동시대의 일반적인 관념보다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고, 조금 더 앞서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 인권, 이민정책 등 주요 이슈마다 뉴욕타임스는 늘 그랬다.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최고 명성이 얻어진 것은 아니다. 사소한 듯하지만 다른 신문과 차별화된 '디테일'로도 꾸준히 신뢰를 쌓아온 게 오늘의 뉴욕타임스를 있게 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2017년 3월 4일자에 무려 164년 전 기사의 정정기사가 실렸다. 1853년 1월 20일자, 남치돼 노예로 팔렸다가 12년 만에 자유를 되찾은 흑인 솔로몬 노섭(Solomon Northup)을 소개한 기사에서 노섭이라는 이름이 잘못 표기돼 있었던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또 하나는 올해 2018년 3월 28일자에 실린 유관순 열사(1902~1920) 부고기사다. 뉴욕타임스가 왜 뜬금없이 거의 100년 전 승진



이상원 (가정 87, 인문 91)

하기 말의 '말하기와 토론' 수업 시간이었다. 찬반 토론 주제로 '꿈을 이루기 위한 학업과 인간관계 중 어느 것이 대학생활에 더 중요한가?'가 등장했다. 토론 주제는 전적으로 학생들이 결정하고 선생인 나는 청중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 수업의 방식이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전 의견 개진 차원에서 청중들은 자리를 나누어 앉게 되었다. 학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나는 잠시 망설이다 왼편에 앉았다. 물론 학업과 인간관계는 모두 중요하다. 토론조 학생들도 그걸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찬반 논의를 위해 양자택일의 극단적 상황을 설정했던 것이다. 그날, 나를 제외한 청중은 열세 명이었다. 인간관계를 선택한 학생은 세 명인 반면 학업을 선택한 학생은 열 명이었다. 그 격차가 내게 일단 충격을 가했다.

토론이 시작되었다. 학업과 인간관계를 상징하는 가장 인물이 등장했다. 신입생 시절부터 여러 논의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보자. 우선 김독고 측에 대한 이콜택 측 비판으로 꿈을 이

결과 지금은 온라인 유료 구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종이신문 구독자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수익도 온라인 구독 매출이 인쇄물 광고 매출을 웃돈다.

인터넷 공간의 모든 콘텐츠는 공짜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뉴스도 정보도 모두가 공짜로 본다.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돈과 시간을 기꺼이 내겠다는 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 답은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독보적인 저널리즘' 전략이었다. 2017년 발표된 자체 보고서에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첫째, 경쟁사와 차이가 미미한 기사는 쓰지

“이 기자의 대응 방식이 옳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본인도 사과를 했다. 하지만 부당한 인종차별에 그렇게라도

맞선 것은 남다른 용기를 요하는 일이었다.

뉴욕타임스는 그 점에 오히려 더 점수를 준 것”

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세계 각국 여성들도 다루기로 했다.”

#. 남과 달리 생각하고 남과 달리 행동하는 뉴욕타임스의 '진보성'은 디지털에서도 드러난다. 뉴욕타임스는 2011년 유력 언론사로는 가장 먼저 온라인 유료화에 나섰다. 그

관계로 바탕으로 필요한 도움을 얻어 열매든지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모두 납득이 가는 얘기였다.

토론이 끝난 후 생각이 바뀐 청중은 자리를 바꿔 앉으라고 했다. 학업을 선택했던 학생 한 명이 인간관계 쪽으로 넘어와 학업 쪽 이쪽, 인간관계 쪽 네 명이 되었다. 격차가 조금 줄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학업이 대세였다. 학생

## 학업과 인간관계, 뭘이 중한가?

“...내가 겪은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입시교육을 거친 후 다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경쟁 단계에 돌입하는

상황이니 말이다. 인간적 교류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김독고 측을 선택한

학생들의 모습이 그래서 충격적...”

학기 장학금을 받고 성공적인 미래를 앞둔 '김독고', 그리고 각종 모임과 행사에 빠지지 않으며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지만 공부에 쓸 시간이 부족해 간신히 졸업이나 할 수준인 '이콜택'(이 이름은 콜택시에서 따온 것으로 부르면 늘 달려오는 사람이라는 의미였다)이다.

여러 논의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보자. 우선 김독고 측에 대한 이콜택 측 비판으로 꿈을 이

논란이 된 여기자 채용 건에서도 확인이 된다. 내용은 이렇다. 최근 첨단 기술분야 수석기자로 사라 정(30)이라는 한인 여성을 한 명 뽑았다. 그런데 이 기자가 과거 백인 남성들을 골라 비난한 글을 자주 SNS에 올린 것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경쟁 언론사들이 인종차별주의자를 고용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일부 네티즌들도 가세하며 채용취소 요구가 빗발쳤다.

뉴욕타임스는 의연했다. "사회적 소수자였던 기자가 과거 백인 남성들로부터 받은 건지기 힘들 정도의 인종차별에 '미러링'으로 대응한 것일 뿐"이라며 채용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러링이란 특정 혐오 행위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방식 그대로 가해자에게 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물론 이 기자의 대응 방식이 옳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본인도 사과를 했다. 하지만 부당한 인종차별에 그렇게라도 맞선 것은 남다른 용기를 요하는 일이었다. 뉴욕타임스는 그 점에 오히려 더 점수를 준 것이라라.

많은 사람들이 신문의 위기를 말한다. 이럴 때 뉴욕타임스의 어제와 오늘은 많은 신문들에게 밤길의 작은 등불이 되고 있다. 그리고 조금만 눈 여겨 보면 그 등을 밝히는 기

름은 진실 앞의 용기, 작은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미국의 변방, 한글 신문이 분투하며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신문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문의 위기를 말한다. 이럴 때 뉴욕타임스의 어제와 오늘은 많은 신문들에게 밤길의 작은 등불이 되고 있다. 그리고 조금만 눈 여겨 보면 그 등을 밝히는 기

름은 진실 앞의 용기, 작은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미국의 변방, 한글 신문이 분투하며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신문도 있기 때문이다.

#. 뉴욕타임스의 남다른 면은 이번 주 내내

들은 토론을 평가하면서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양자택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법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졸업반 학생은 현재로서는 학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입장이 달라지면 선택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학업 아닌 인간관계를 선택한 이유도 1987년 입학 후의 4년이 학업에 별 비중을 두지 않고 홀랑갔다는 개인적 경험 때문이었던 것 같다. 졸업 후 그럭저럭 먹고살 수는 있다는 믿음이 퍼져 있던 때였다. 나는 강의실보다 동아리방이나 독서모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고 학점을 잘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다. 학점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 자체가 내 주변엔 드물었다(유유상종이라 그랬을 지도 모를 일이지만).

그런 경험 때문인지 과제와 시험으로 매일을 전쟁처럼 살아내는 지금 학생들을 보면서 나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내가 겪은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입시교육을 거친 후 다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경쟁 단계에 돌입하는 상황이 말이다. 인간적 교류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김독고 측을 선택한 학생들의 모습이 그래서 충격적이었다.

그럭저럭 먹고살 수 있겠다는 믿음이 불가능해진 세상이 결국 문제의 원인인가 보다. 학생들과 나는 서로 다른 조건에서 학부 시절을 보내는 존재, 그리하여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존재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고 나니 어쩐지 씁쓸하다.





주중광 (약대 60)

### 제27차 평의원 회의 기조 강연

### ‘The Big Picture’

‘Future of the USA’

#### 패권국가를 만드는 원동력

첫째, 전략 자원(oil, mineral & food), 둘째, 무역 루트 (land, air & sea), 셋째, 결제 수단 (reserve currency)이다. 미국은 이 세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전략자원, 중국은 준 결제 수단으로 격상된 위안화 만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대일로’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과거 ‘실크로드’ 같은 방식의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육상 해상 교역 경제 벨트를 주변국가



협의하에 야심차게 만들고 있다.

남지나 해에서 중국은 자국 영토인 작은 섬에 시멘트를 들어 붓고, 면적을 넓혀 군 사기지화하여 주변 베트남, 필리핀과 충돌을 야기한다. 미국은 이에 맞서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동맹 일본과 함께 이 지역의 긴장을 견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과거 구 소련 주변국가와 협력하여 구 소련의 남방 정책을 견제한 것처럼 중국을 둘러싼 나라들과 인도 태평양 동맹을 만들어 전력 자산인 해군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한다. 동맹국인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디아, 호주를 연결해 태평양, 인도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미국이 조금 답답해 한다.

미국의 미래학자 George Friedman은 2010년 그의 저서 The Next 100 Years에서 “나는 중국이 앞으로 세계의 패권을 질 나라가 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이나라가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 유지할 것이라는 믿음조차 없다.”라고 말했다. 나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 그의 의견을 요약하면,

#### Fall of P. R. China (when, not if)

- 1. Communism** (dictatorship-corruption & reduced national productivity)
- 2. Overspending on military expansion** (following the Soviet Russia's mistake during the Cold War)
- 3. Mismanagement of national debt** (over spending on housing, infrastructure building & shadow financing, including the Silk-Road)
- 4. Mismanagement of population policy** (Population is an asset & a big liability)
- 5. Mismanagement of minority Issues** (>55 minorities exist in China)
- Uprising & social unrest by becoming maturing capitalism (Income inequality & political aspiration) temporary blocked by dictatorship, but the dictatorship will end in due time.
- 7. Mismanagement of its environment** (Causing health crisis & social

- unrest)
- 8. US strategies isolate China by US** (Indo-Pacific alliances like what US succeeded to handle Soviet Union during the Cold War)
- 9. Internal conflicts among political factions** (Three political power)

중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군사적 야심, 빚, 소수민족, 부패, 인구, 사회불안, 환경오염, 독재 뿐만아니라 미국 패권에 대해 너무 일찍 도전하는 모습 등을 “China syndrome”이라고 부른다. 일찌기 등소평은 유언에서 앞으로 2050년 내에 미국에게 도전하지 말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 그런데, 2020년도 안 돼 중국은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모양새다. 중국이 많은 인구와 수많은 내부 문제를 통제할 목적으로 외부에 주적으로 미국을 설정해 놓은 듯 하다.

#### 미국은 어떻게 세계 패권을 유지할까?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를 놓고 보면, 현재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으며, 과거는 이미 지난 역사이므로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많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미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a(알파)를 더한 결과다. 다시 말해 과거를 1로, 현재를 1로, a(알파)를 1로 보고, 미래를 예측했을 때, 이미 삼분의 이는 아는 것이므로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현재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7가지를 모아봤다.

**1. Higher Academic Institutions** (Educating future generations in world clas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think tanks -Increase R & D, productivity) 7-8 Universities of top 10 academic institutions in the world are in the USA.

국가를 지탱하는 학문의 가치 측면에서, 세계 정상급 대학들은 하루아침에 세워지거나 파괴 될 수 없는 국가 보물이다. 대학의 역할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데 필수적이며, 나라의 미래를 지탱할 대들보다. 그것은 국가의 혁신, 생산성과 명성을 향상시켜 강력한 시민사회를 만든다. 미국의 정상급 대학은 세계 유수의 언론이 만드는 탑텐 리스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더 나아가 미국은 1백만이 넘는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많은 외국 학생들 특히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STEM) 분야 학생들이 학위 취득 후, 미국에서 취업하며, 미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2. Biomedical Research** (Biotechnology, drug discovery & development, gene-editing, gene therapy, immuno-oncology / vaccines, stem cells, nano-tech.) Requires intensive basic & applied research conducted by highly trained Scientists as well as appropriate funding by NIH, NSF & industries.

미국은 의공학(醫工學, biomedical engineering) 분야의 진정한 세계 선두 주자다. 지난 30년 동안, 주로 학술 연구와 수천개의 혁신적인 생명공학 벤처기업이 미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나와 국가 GDP를 크게 도울 만큼 환자들을 위해 의학의 마중물 수요(unmet need)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3. Immigration policy**  
Brain drain from the world by world-class universities, population increase, 3rd most populous country in the world-no problems for aging-related issues.

민주자본주의 국가의 존재는 그나라 인구 증가가 큰 밑거름이 된다. 미국은 이민 정책으로 선진국 중 인구 감소를 걱정 안해도 되는 유일한 국가다.

**4. Energy-related technologies US Energy revolution** (Freaking shale oil & natural gas production).

유압 파쇄(hydraulic fracking)로 생산하는 미국의 셰일 오일 및 가스 에너지 전망을 안정화시켜 미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에



백효식 (문리 52)

### <시 감상>

### I AM the people, the Mob

Chicago Poems,” Carl Sandburg

#### 시인에 대하여

Carl Sandburg는 Swedish American의 부모 슬하에서 1878년 정월 엿새에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문학을 좋아해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세 번이나 Pulitzer Prizes를 받았는데 두 번은 시를 써서 받았고 한 번은 Abraham Lincoln에 관한 일대기를 써서 받았다. 그가 살아 있는 동안 문학가로써 미국뿐만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많은 문인이 그를 부러워할 정도로 잘 알려진 작가이기도 하다. 중요한 작품으로는 Chicago Poems - 시카고의 시 (1916), Cornhuskers - 옥수수 겹질 벗기는 사람들 (1918), 그리고 Smoke and Steel - 연기와 철강 (1920) 등이 있다. 그는 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무적의 매력 (Unrivaled Appeal)”을 즐겼다고 전해진다. 1967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 Lyndon Johnson 대통령은 Carl Sandburg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미국을 대변한 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그는 미국인인 동시에 “그는 곧 미국이다”라고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 시 감상

“나는 인민이요 군중이다. 나는 인민이요, 군중이요 - 집단이다”란 시의 표현은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독자들을 설득하여 시의 내용을 이해시키려 하고 있다. 영어 사용에서는 문법적으로는 I (내가) People (인민이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세계 에너지 미래에 역동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5. Defense & Space industries**  
High-end (precision) weaponry, satellite technology & space exploration.

우주 탐사는 인간 노력의 최전선이다.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과학의 지평을 넓히고, 무엇보다도 그 성공은 미국의 자부심과 명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6.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technologies**  
4th industries (SNS, robots, cars, drones, 5G, digital technology, etc.).

**7. Entertainment Industries**  
Requires high creativity, innovation & progressive cultures.

위에서 본바와 같이 미국은 현재 세계를 리드하고 있고 앞으로도 리드할 원동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 대학과 학문의 번영으로 장기 발전의 토

대가 된다. - 이민 장려 정책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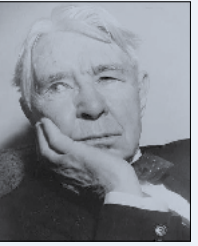
- Energy Revolution으로 자원 문제가 해소되었다. -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토대로 패권을 유지한다. - Progressive culture로 문화의 발전 및 전파한다. - 미국은 영토 확장의 야심이 없고 다른 국가들과 공존하며 번영을 같이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며, 세계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도전국 (China, Russia, Japan, etc)과 다른점이다.

#### 미국은 얼마나 오래 패권을 유지할까?

과거 로마시대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자. 로마는 로마 공화국과 로마 제국으로 나뉜다. 로마 공화국은 BC 509년부터 BC 26년까지 483년, 로마 제국은 서로마, 동로마 제국 합쳐 BC 27년부터 AD 1453까지 1,479년, 그래서 전체 1,962년 동안 유럽 일대를 지배했다. 이러한 대체국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이유는 여러가지 설이 존재한다. Evans Andrews가 In History News에서 분석한

**I AM the people, the Mob**  
나는 인민이요 군중이다

“Chicago Poems,” Carl Sandburg



Carl Sandburg

I AM the people, the Mob  
나는 인민이요 군중이다

I AM the people, the mob—the crowd—the mass.  
나는 인민이요, 군중이요, 무리요-집단이다.

Do you know that all the great work of the world is done through me?  
당신들은 아시나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I AM the workingman, the inventor, the maker of the world's food and clothes.  
나는 일하는 사람이며, 발명가며, 세계의 음식과 옷을 만드는 사람이다.  
I AM the audience that witness history. The Napoleons come from me and the Lincolns, They die. And then I send forth more Napoleons and Lincolns.  
나는 역사를 증거하는 관중이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도 나에게서 나왔고 링컨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죽는다고. 그러면 나는 더 많은 나폴레옹과 링컨 같은 사람들을 내 보낸다요.

Terrible storms pass over me and make me work and give up what I have. And I forget.  
무서운 폭풍이 나에게 몰아쳐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하게도 하지도. 그렇지만 나는 잊어 버린다요.  
Sometimes I growl, shake myself and spatter few red drops for history to remember.  
Then - I forget.  
때때로 나는 스스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하여 으르렁대며 몸부림 치며 몇 개의 붉은 물방울을 튀기기도 한다요. 그리고 나서 - 나는 잊어 버린다요.

When I, the People, learn to remember, I, the people, use the lessons of yesterday, and no longer forget who robbed me, who played me for a fool.  
나, 인민이 기억하기 위해 배우려 할 때, 나 인민은 어제의 교훈을 사용한다요. 그러면 누가 나를 속이고 나를 조롱했는지를 그 이상 잊어 버리지 않는다요.  
Then there will be no speaker in the world who says the name, “The People,” with any fleck of a sneer in his voice or any far-off smile of derision.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인민”이라는 이름을 말할 사람이 없을거요. 곧 그의 목소리에 냉소의 얼룩점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당치도 않는 냉소의 웃음을 가지고 (말할 사람이 없을거요).

The mob - the crowd - the mass - will arrive then.  
군중과 무리와 집단이 그때 도착할 것이요.

로마제국이 멸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외부의 침략으로 인한 외부적 요인이고, 둘은 노예제도, 과세, 영토의 무리한 확장 등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착취이다.

만약 미국이 몰락한다면 언제,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1. Decline of higher education, science & research enterprise**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s, think-tank, etc.)
- 2. Economic troubles** (Failure of monetary policy- loss of Reserve currency status, collapse of capitalism by Greediness, income inequality, overspending on the military, Health care & social programs),
- 3. Collapse of federalism** [Dispute among states leading to split Two independent states (countries)]
- 4. Failure of immigration policy** (mis-planned population Policy)

**5. Uncontrolled domestic firearms** (Domestic terrorism, Militia, mass murdering of innocent citizens, which creates Unstable society, etc.)

위에서 언급했듯, 로마 제국 몰락의 원인은 외부 요인이다. 반대로 미국이 만약 몰락한다면 위와같은 내부 요인이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결론

미국의 교육, 사회,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견고한 틀 위에서 자유민주주의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이고, 지적인 것에 기반하여 세워졌다. 이 시스템은 개인 또는 국가가 가진 자체 능력을 잘 개발하게 하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게 한다. 따라서 나는 미국이 긍정적인 전망만큼이나 현재 추세와 역사적인 사실(로마가 2,000년을 지속)을 고려해 적어도 2,000년 이상 번영할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해는 뜨고 지듯, 한 나라가 번영하고 몰락하는 것은 결국 자연의 섭리이다.





이원택 (의대 65)

### 鳳凰의 城

#### - Las Vegas의 진면목 -

#### (1) 결모습

한가한 일요일 오후에 McCarran 공항의 상공을 쳐다보면 큼직한 비행기들이 5분내지 10분 간격으로 이착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Las Vegas는 미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도시로서 어떤 이는 아마도 2020년까지는 미국의 10대 도시에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Las Vegas에서는 최신판의 정확한 지도를 구할 수가 없는데 이는 도로망의 건설이 지도를 만드는 것보다 더 빠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죄악의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죄악을 추구하는 동물로 변해가고 있던 말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죄악은 즐거운 것이지만, 즐거운 일 모두가 죄악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동물이 아닌가? 그렇담 Las Vegas를 “환희의 도시”로 불러보면 어떨지? 요즈음은 사람들이 많이 악어졌기 때문이다.

이같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면 Las Vegas에 매력이 있음이 틀림없다. 날씨는 1년 중 오직 6개월 만 나뉘네, New York이나 Orlando도 마찬가지이다. 바람이 불지 않는 한 항상 공기가 맑고, 비나 눈이 올 염려가 없기 때문에 10월부터 3월까지의 그야말로 Golfer들의 천국이다.

이곳에는 수많은 자연의 기적과 자원이 차로 운전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Mt.Charleston에 스키를 타러 갈 수도 있고 Dixie National Forest는 동부의 숲속을 연상케 한다. 등산을 좋아하면 Strip에서 40분이면 갈 수 있는 Charleston에 가라. Lake Mead에서 집 같이 만들어진 유람선을 빌리거나 Jet ski를 타는 일은 무더운 한여름에 필히 할 일이고 Colorado 강변에서 일 년 내내 할 수 있는 낚시는 Strip에서 한 시간 이내에 갈 수 있다. 젊은이들은 2시간 반을 운전해서 유타주에 있는 Cedar city에 ski를 타러 갈 것이고, 노부부는 Cedar Breaks National Monument 에서 심호흡을 하기도 한다.

대부분이 Grand canyon을 보았겠지만 번두리 공항에서 떠나는 Helicopter여행은 많이 하지 못했으리라. 아직까지 못 해봤다면 꼭 한 번 해 보기를 바란다. 특히 애인하고 같이 타면 본전을 뺀고도 남을 것이다. Grand canyon은 북쪽에서 볼 때, 아래서 볼 때, 거울에 볼 때, 석양에서 볼 때와 남쪽에서, 위에서, 여름에, 해가 뜰 때 보는 것하고 상당히 다르다. Yosemite는 서너 번 보고 나면 식상하고 마는데 Grand canyon은 다섯 번을 보고 나도 새로운 영감을 느끼곤 한다. 정말로 장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 장모님은 한때 몰몬교도들이 자연성당으로 쓰던 Zion canyon을 좋아하셨는데 비록 몰몬교도가 아니더라도 그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 무언가 영적이거나 초자연적인 향기를 맡게 된다. 그 계곡들은 깊으며 그 바위들은 고고하다. 반면, Bryce canyon은 귀엽고도 특히 해가 뜰 때의 색깔은 정말로 아름답다. 이와 같은 삼대 협곡을 보고 나면 과연 천지창조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또 하나의 기적은 Death Valley National Monument인데 이곳은 Strip에서 3시간 정도 운전해야 하고 또 너무 더워서 6월부터 9월까지의 갈 수가 없다. California의 gold rush에 눈이 멀어 허겁지겁 달려오다가 목이 타서 죽은 수많은 “금 귀신”이나 Chicago에서 자재를 실어다가 집을 지은 옹고집 “Scotty’s Castle”을 제쳐 놓고라도 그곳에는 수많은 모래언덕과 바위산들이 그 소 광물 집의 농도에 따라 형형색색으로 때로는 무지개 색상으로 채색되어 있다. 또한 그곳에 있는 Oasis와 염전에 고인 물은 각각 좋은 것과 나쁜 것, 희망과 절망, 삶과 죽음을 상징하는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옛날에 鳳과 凰들이 놀러 다녔다는 전설적 도시 봉황성의 현대판 Las Vegas에 왔다가 봉들이 몰려갔다가 황당하게 당하고만 왔다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Las Vegas의 진면목을 알아보기로 하자.

#### (2) 속모습

범위를 좁혀 시내로 들어와 보자. Las Vegas는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그 크기가 20년 만에 3배, 그리고 10년 만에 두 배가 되었다고 한다. 커다란 분지의 70%가 시멘트와 아스팔트, 모래와 자갈로 덮여지고 도로망은 미 전국에서 제일 잘 돼 있다고 한다. 최근에 대형으로 개발된 두 교외지역이 있는데 하나는 주로 부자들을 위한 Summerlin으로

Strip에서 서쪽 15분쯤 되는 데 있고 다른 하나는 중산층을 위한 Green Valley로서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다. 둘 다 골프장을 중심으로 설계된 지역들이다.

Las Vegas는 너무 과잉으로 건설되어 있으며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하락으로 신축건물의 과반수가 비어 있고 또한 은행 차입률도 미국에서 제일 높다고 한다. 지금이야말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집이나 타임셰어를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는데 콘도 두 개를 한 개 값으로도 살 수 있으니 하나는 별장으로 쓰고 또 하나는 투자로서 두어두 괜찮을 것 같다.

나는 현 상태의 Las Vegas가 딱 좋다.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차들은 필요 없기 때문이다. 현재도 교통수단이 문제인데, Strip은 더 이상 자동차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발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낮이나 밤이나 또는 남쪽이나 북쪽을 향하든지 간에 한 번 들어가거나 나올 때

로는 Venetian에 있는 Fiasco나 Vatican에 있는 벽화가 구별이 잘 안 간다. Luxor에 있는 거대한 Sphinxes, Paris에 있는 금 맥끼를 한 Eiffel Tower 그리고 Caesar’s Palace에 있는 수많은 로마제국 때의 동상들은 가히 진짜 뽀질 만한 가짜들이다.

무슨 이유에선가 Mandalay Bay에 있는 레인 동상은 머리가 없는데 아마도 공산주의자들은 Gambling을 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지도 모르겠다. MGM에 있는 세겨에서 제일 무거운 청동조형물은 수년 전 성형수술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원래 그 사자는 입을 마음껏 벌리고 포효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는 MGM에서 중국고객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 중국식 사고방식으로는 그 애써서 번 돈이 넓게 벌려진 사자의 입을 통해서 다 나가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있는 동물의 제왕 사자님께서는 입을 다문채로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Las Vegas는 또한 shopping의 명소로서 싸구려부터 최고급 명품에까지 없는 것이 없다. 실용적인 물건을 사려면 Strip의 남쪽과 북쪽 끝에 위치한 outlet을 가면 되는데 남쪽 매장에서는 조금 싼 것을 북쪽 매장에서는 조금 비싼 것을 판다고 한다. 눈이 높은 고객님들께서는 “벨라지오”나 “파리스”에 있는 5성급 상점들이, 눈요기하기로는 Caesar’s Palace의 Forum이나 Venetian의 Grand Canal 또는 Planet Hollywood의 Mirade Mile 이 안성맞춤이다.

이들 모두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구름과 명암이 엇갈리는 인공하늘이 있는데, 약 15년 전에 시저스에서 그것이 첫 선을 보였을 때 나는 내 친구한테 10불을 걸고 진짜라고 우긴 적이 있다. 아직도 나는 그렇게 절묘한 것이 어떻게 가짜일 수가 있을까 하고 석연치 않아 하는데 이것은 마치 예쁜 아가씨가 미소를 지을 때 꼭 나를 향해 웃는 것으로 착각하는 타고난 보헤미안의 기질 때문인 것 같다.

평균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만약에 Strip에 묵고 있다면 Monorail을 이용할 것이고 외곽에 있는 Hotel에서는 그들의 자매 Hotel을 연결하는 Shuttle Bus를 이용할 것이다. 대부분의 Las Vegas Hotel들은 소유주들이 서로 영기고 설겨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제일 속편한 것은 자동차를 rent해서 Strip에 있는 Hotel에 대형 차고에 공짜로 주차시켜 놓고 벨 끌리는대로 거리를 어슬렁대거나 맘 내키면 또 차를 몰고 훌쩍 떠나버리는 것이다. Las Vegas는 특히 Strip 주변은 꽤 안전한 편이나, 정직성을 기대하지는 말아야 한다. 즉 실수로 지갑이나 핸드백을 식당이나 Taxi에 놓고 떠났다면 아예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3) 참 모습

그러나 뉘니뉘니해도 Las Vegas의 진수는 도시 생활이다. Las Vegas는 유흥업의 수도로서 무려 50여개의 대형 show가 매일 열리고 있고 매일 밤마다 진행되는 “소형 show”는 몇 개나 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기 바란다.

내가 27년 전에 Las Vegas를 처음 방문했을 때 Lido show를 보고 감탄해마지 않았는데, Paris에서 본 원조보다 백 배 더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관광객 이외는 “발리”에서 하는 그 후신 Jubilee를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때부터 나는 Las Vegas의 대형 show를 전부 볼 욕심을 냈는데 물론 아직까지 그 절반도 보지 못했다.

그동안 show의 경향을 관찰한 바에 의하면, 예전에는 주로 말초신경 즉 감각대를 자극했는데 요즈음은 중추신경 즉 대뇌피질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얼마 전

에 친구 부부와 같이 MGM에서 하는 “Crazy Horse”라는 show를 본 적이 있다. 마누라쟁이들이 초장부터 “topless 나체 show”라고 눈살을 찌푸리더니만 다 보고 나서는 “정말 예술이었다. 인간의 육체야말로 하늘의 완벽한 창조물”이라고 절찬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nude show를 좋아하는데 Las Vegas에서는 좀체로 값싼 나체 show를 구경할 수가 없다. 모두들 소위 예술이라는 허울 아래, 음악과 춤과 만담, 마술, 곡예, 이야기, 음률과 시 그리고 computer 기교까지 동원해서 “나체”를 뒤집어 씌어 놓고 있다. 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기획회사 “Cirque de Soleil”는 이상의 여러 장르를 대형으로 뒤섞어 놓는데 재주가 있다.

show 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도시도 Las Vegas를 따라갈 수가 없다. show의 흥행기간을 보면 어떤 show는 1주에 6일씩 30년 이상을 끌어오고 있다. Show의 다양성은 공짜배기 “서커스 서커스”에서부터 세계 정상 의 “Phantom of the opera”까지 있지 않은가.

또한 동원된 청중의 숫자나 총 매상은 어떠한가? 새로 짓는 Hotel은 아예 show에 맞게 설계를 하고 있고 Celine Dion의 마지막 2달치 공연은 돈을 주고도 표를 살 수가 없다. 그녀의 CD를 20불이면 살 수 있는데 Internet 가격으로 1,000\$씩 주고 살 만큼 쓸개 빠진 내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show라도 세월이 지나면 값이 내려가리라는 희망 아래 부지런히 반값으로 sale하는 매표소를 애용하고 있다. 약 2달 전 Celine Dion 표가 200불 정도에 팔렸는데, 나는 공연이 마감될 즈음에는 100불 정도로 떨어지리라 예상하고 기다렸다가 마누라한테 그건 무지몽매한 데다 자린고비 구두쇠까지 겹친 것이라고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언젠가는 Elvis Presley나 프랭크 시나트라 같이 Celine Dion show도 가짜가 나올 것

이고 또 그것이 값도 쌀 뽀터러 공연도 훨씬 더 나오리라 기대하면서 말이다.

물론 Las Vegas에서 show보다 더 중요한 산업이 도박이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나는 도박에는 별로 취미가 없지만 “도박정신”만은 높이 사고 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눈동자는 초롱초롱하고 그 눈빛은 반짝인다. 열마를 잃던지 상관없이 그들이야말로 인생의 승리자인 것이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돈이 지속되는 한 인생이 지속되는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이 끊어질 때 돈도 끊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돈이 끊어질 때 삶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casino에는 세 가지 없는 것이 있다. 즉 시계와 창문과 sofa가 그것이다. 왜? 그들은 당신이 도박 이외에는 딴 일도 하지 말고 딴 생각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 오직 도박만을! 그것도 빨리, 빨리!

어떤 이는 새로 지은 Hotel로 또는 Las Vegas 주민들이 가는 곳 또는 번두리로 가 보라고 한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이 털리고 난 Machine에 앉거나 또는 새벽에 하면 확률이 높다고 한다.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75 (2018. 7 ~ 2019. 6)	<input type="checkbox"/> \$240 (2018. 7 ~ 2019. 6)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50 (2017. 7 ~ 2019. 6)	<input type="checkbox"/> \$480 (2017. 7 ~ 2019. 6)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 _____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3,000 (중신이사회비)	일반 광고 문의: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 _____		general@snuua.org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재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Email: general@snuu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체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과학소설같이 흥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Bonus점수를 얻어내는 길은 아주 박력이 있고 거의 천재적인 발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야말로 “인간도박학”의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에 요즈음은 1불이나 2불짜리 블랙잭 테이블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거의 모든 casino에서 5불이 최하다. 돈이 무한정 있으면 계속 double betting을 하면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액이 4차리수로 올라가면 betting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도 계속 double betting을 하면 지배인이 슬그머니 밖으로 끌어내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냥 1센트짜리 Machine에 앉아서 계속 하나만 betting하면서 sexy한 중업원한테 공짜 술이나 얻어 마시는 게 제일 실속이 있지 않을까? 다만 wine이나 cocktail은 시키지 말고 가능하면 name brand beer를 시키라는데 casino에서는 값싼 wine이나 brandy를 serve 한다나 어쩐다나.

뷔페에 걸신이 들리지 않은 한, Las Vegas의 식비는 싸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다양한 음식을 고급 식당이나 Hotel에서 취향에 맞게 식도락을 즐길 수 있다. 한국음식은 저렴한 가격에 24시간 먹을 수 있고 한국식 중국음식도 쉽게 대할 수 있으니 관광객이나 주민이나 또는 나 같이 어찌다가 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축복이 아닐 수 없다.

Las Vegas에서 결혼하기는 간단하다. 현금 50불과 한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쉽게 결혼할 수 있으나 이혼만큼은 Las Vegas라고 싸게 먹는 것은 아니다. Las Vegas에서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율이 딴 곳에서 한 사람들에 비해 높은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디에서 했던 결혼에서 승자가 될 수는 없다. 어차피 결혼은 도박이기 때문이다. 고로 마치 1센트 slot machine처럼 인내심이 다할

때까지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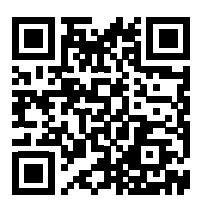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Las Vegas는 그 거대함과 다양성으로 인하여 편리하고 문명화되고 친절하고 유쾌한 도시인 것이다. 그녀는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과 아마도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줄 것이다. 남성독자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주머니 사정상 또 라스베가스에서는 매춘이 불법이기 때문에 고층콘도에 자리 잡은 프라이빗 룸살롱이나 근교에 있다는 Chicken Ranch 등의 밤무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런 것 아니라도 Las Vegas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또 축복받은 도시임에 틀림없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믿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축복받은 도시 Las Vegas로 오기를 기대해 본다.

꿈의 봉황성, Las Vegas아말로 “태양 아래 천국”이 될 테니 말이다. 이곳에 오시는 손님들은 전부 鳳이고 사모님들은 전부 鳳일진데.

Galla Las Vegas! Viva Vegas! Come to Las Vegas!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다음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동창회비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2차 회기까지 모두 내신 분

Table listing members and their dues for the 2017-2018 period. Columns include member names, their university/department, and their payment status. Includes sub-sections for '북텍사스' and '북미주'.

동창회비 (2차 회기: 2018.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차기 1차 회기까지 내신 분

Table listing members and their dues for the 2018-2019 period. Columns include member names, their university/department, and their payment status. Includes sub-sections for '북미주' and '북텍사스'.

중신 이사비 (\$3,000 이상 / 70명)

Table listing members who have paid more than \$3,000 for their dues, categorized by region (e.g., 북미주, 북텍사스, 미네소타).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광고

Pancom 광고기획
김영민 (농대 72)
Tel:(213)427-1377 / youngkim@pancom.com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GSK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재정 / 보험 / 컨설팅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해태 USA/Haitai Inc.
정정우 (수의 74)
Tel. 323-890-0101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정수만 안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KMAX
유창호(약대 74)
Tel. 213-381-3200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치과
오홍조(치대 56)
Oh, Heung Jo
2860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모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준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변호사
신윤남 변호사
신윤남(농대 70)
Tel: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Promise Realty
김도명 (농대 70)
조민형 (음대 84)
Tel. (201) 585-7766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심인보 심장내과
IN-BO SHIM, M.D.
심인보 (의대 77)
Tel. (201) 569-1800, (718) 836-0009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알러지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소아과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박종호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호 (의대 79)
Tel. (201) 242-100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MD-VA 워싱턴 DC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el. 703-827-7300

MD-VA 워싱턴 DC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el. 703-827-7300

MD-VA 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재정 / 보험 / 컨설팅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마트너쉽으로 어느곳이든 아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어느곳이든 5스타급 서비스와 가이드
usajutour.com
213-388-4000

KCC News kccnews.net
The Korean Christian Community News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과 크리스천 문화활동을 취재보도하는 Internet Media.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세요. <편집부>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4대 미주동창회

<b>역대회장</b>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윤락 (공) 오홍조 (치)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중 (상) 오인환 (문) 명예회장: 손재욱 (가정)
<b>제14대 회장: 윤상래 (수)</b>
차기회장: 신응남 (농) Brain Network 공동 부회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강명구 (문), 김병국 (공) 고문: 고일석 (보), 김은한 (의), 정정옥 (의), 김문소 (수) Corporate Counselor: 신응남 (농)
<b>집행부</b>
본부 부회장: 장수인 (음) 사무총장: 이상운 (수) 재무 국장: 김제성 (공) 총무 국장: 이진희 (수) 총무: 배지선 (수), 총무보: 황보민영 (공), 강은주 IT Consulting Team 업무 국장: 정선주 (간) 섭외 국장: 윤희훈 (공) 홍보 국장: 이영인 (사)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b>회보 발행인: 윤상래 (수), 고문: 김은한 (의)</b>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정태영 (문) 편집 위원: 윤희훈 (공), 홍선례 (음), 정태영 (문), 이정수 (공), 백옥자 (음) 이영인 (사), 장수인 (음), 김제성 (공), 이상운 (수), 이진희 (수) 허유선 (가정), 한정민 (농), 배지선 (수)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한정민 (DC)
<b>IT위원장: 김정현 (공)</b>
<b>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b> 논설 위원: 김 영 (수), 강영국 (수), 정태영 (문), 박광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김용현 (경),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홍 (법), 이석구 (문), 이원영 (사), 이재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b>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b>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b>SNU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의)</b>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중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b>장학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수), 공동 위원장: 김용구 (공)</b>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b>포상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b> 위원: 각 지부 회장
<b>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b>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b>감사: 김명승 (상), 박영철 (농)</b>

미주지역 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강신용 (사대 73)	213-380-1600 aamkocpa@gmail.com	Feb-Jan
	차기회장	한귀희 (미대 68)	805-300-7977 khahn@4apec.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곽준경 (법대 75)	650-656-7683 joon.kwa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	회장	손대홍 (미대 79)	201-388-4700 sohn6305@g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윤은상 (상대 66)	978-886-5989 eunsang_yoon@uml.edu	Jul-Jun
	차기회장	이강원 (공대 66)	401-369-1565 kwaynelee@gmail.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이석호 (농대 78)	214-244-3630 iseeko@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480-209-9992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황효숙 (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Jan-Dec
	차기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423-1055 sejinsong@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이재봉 (인문 88)	760-585-8396 jebong20@yahoo.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홍혜래 (사대 72)	773-896-7987 hyerye.h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김승주 (간호 69)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래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차기회장			
오레곤 OR/ID	회장	김기린 (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정병희 (공대 71)	301-661-9227 paulchung5@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류성렬 (공대 72)	425-786-4766 stiinc94@gmail.com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전무식 (수의 61)	267-242-5097 msjeon41@gmail.com	Jul-Jun
	차기회장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정치영 (법대 76)	305-665-1961 cychyu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오명순 (가정 69)	913-709-2334 msoonbae@gmail.com	Sep-Aug
	차기회장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 (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중욱 (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일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는 싱글맘,  
이제 좋은 짝만 있으면 되겠죠?

**결혼해 듀오**

DUO USA 3701 Wilshire Blvd. #1122, Los Angeles, CA 90010

LA 213-383-2525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최고의 의료진 · 정확한 진단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의 건강검진으로

최고의 감동을 느껴보십시오.

\*예약문의 : +82-2-2112-5500 | healthcare@snuh.org  
\*동창회원 및 가족 10% 할인

http://healthcare.snuh.org

SNUH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EALTHCARE SYSTEM GANGNAM CENTER



# 詩: 골프 인생

## 1. 치는 법을 배움

골프를 치려거든 치는 법을 배우시게  
팔과 어깨 목에서 힘을 주욱 뽑으시고  
백 수wing은 천천히 공에서 눈을 떼지 말고  
고개를 들지 말고 외아들에 정성 쏟듯  
하얀 공에 정성 들여 다운스윙도 천천히  
스~슬쩍 찰싹 하고 내려치는 느낌이라.

## 2. 예의를 지킴

골프를 즐기려면 예법부터 배우시게  
이세상에 신사놀이가 이만한 것 또 있을까?  
말조심, 서는 자리, 앞서가고 뒤 서는 것  
내 파트너 잘 칠때엔 칭찬일랑 잊지 말고  
내 파트너 실수할 땐 그 실수가 내것인듯  
내 친구만 이웃인가! 건너 동네도 이웃일세  
호떡집에 불 안났네 말소리는 조용조용  
실례가 많아 지면 친구들이 멀어지네  
나를 슬프게 하는것 중 이것 또한 으뜸이라  
잘못된 모든 일은 그 모두가 내 탓이며  
라이벌은 누구인가! 바로 "나"자신일세.

## 3. 실패를 극복

골프를 치다 보면 청개구리 "공" 이란놈  
곰배팔이 팽이 친듯 좌측으로 우측으로  
오줌 맞은 두꺼비기 웅덩이로 뛰어 들 듯  
돌 팔매에 놀란 토끼 숲속으로 도망가듯  
골프인생 우리인생 실수 투성이 아니런가!  
관운장도 실수 하여 조조에게 잡혔듯이  
이것들이 그 모두가 병가상사 아니겠소?  
낙담일랑 하지말고 초연함을 잃지 말게  
이번 실수 교훈삼아 새 성공을 기대 하소.

## 4. 과욕은 금물

핸디를 줄일려면 서두르지 마시게나  
열 여덟개 기회 있고 일흔두번 기대 있네  
조금 더 내 보낼까 팔과 목에 힘을 주니  
"공"이란놈 자~알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누나  
상쾌하게 날아가는 공을 한번 바라볼까!  
머리를 번쩍 드니 썩크 뿔이 나는구나  
한번 실수 두번 실수 누구라고 아니 하나!  
전 홀에서 잃은 것을 지금 당장 찾으려고  
욕심을 내어서는 공이 알고 도망 가네  
"항우"장사 실패하여 "유방"에게 잡혔듯이  
"동탁"이가 실패하여 "여포"에게 죽었듯이  
과욕으로 인한 실패 실수 아닌 "업보"라네.

## 5. 운영의 묘

골프를 잘 치려면 나온 거리 남은 거리  
수학 문제 풀어가듯 계산부터 하신 후에  
풀 길이가 길었는가? 장애물은 어디 있나?  
그린 위에 팔락이는 핀을 슬쩍 노력본 후  
분수에 맞는 채를 꺼내 깊은 호흡 한번 쉬고  
마음부터 비운 후에 투~옥 하고 내려 치면  
공이란 놈 날아가서 그린 위에 쫓인다네.

## 6. 정직함

골프를 즐기려면 이세상에 무엇보다  
정직 보다 중요한 것 그 어디에 있을소냐?  
풀샷에 숨은 공을 발로 차서 꺼내 놀까?  
아무도 안보니까 공을 한 개 놓고 칠까?  
모든 유혹 떨쳐버려 있는 그대로 올려 보세  
자기 것을 계산 하고 내가 나를 감독 하고  
백에라도 단 한번쯤 자기 양심 속일 때엔  
"공"이란 놈 먼저 알고 숲 속으로 도망가네.

## 7.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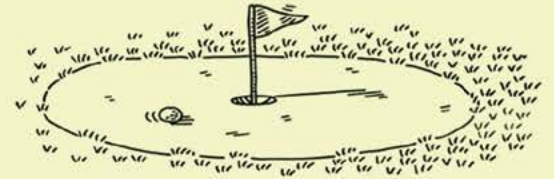
골프를 잘 치려면 운도 또한 기다리세  
모사는 재인이요 성사는 재천이라  
그대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한 후에  
과욕은 극복하고 마음만 차분~하면  
팔과 다리 허리 머리 오장육부 조화 이뤄  
기적 같은 동작들이 이따금씩 나타나서  
날아가는 새도 잡고 홀인원은 못할 소냐?

## 8. 건강

이렇게 하여 열 여덟홀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몸에서는 싱그러운 풀 냄새가 향기롭고  
푸른 하늘 닮은 마음 한량없이 상쾌 하네  
엔돌핀은 축적되고 백혈구도 많아지고  
혈액순환 순조로워 혈압도 두~기 떨어져  
허리뼈가 시큰시큰 이따금씩 아픈 증세  
목욕 한번 하고난 후 씻은듯이 없어 졌네.

## 9. 가정

온종일 나 혼자서 좋은 시간 가진 동안  
사랑하는 우리 아내 골프 과부 만들었네  
당신도 골프 배워 우리 함께 건강 하여  
검은 머리 파뿌리 되어 한 백년을 살아 보세  
미안한 맘 금치 못해 혼잣말로 중얼 중얼  
운전일랑 조심하고 고속으로 가지 마소!  
천사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우리 새끼  
저녁 밥상 차려 놓고 아빠 오기 기다리네.



NEW YORK GOLF CENTER

www.nygolfceneter.com

### HERALD SQUARE



131 West 35th Street  
New York NY 10001  
Tel: 212.564.2255

### GRAND CENTRAL



100 Park Avenue (Entrance on 40th)  
New York NY 10017  
Tel: 212.564.0078

### CHELSEA PIERS



59 Chelsea Piers  
New York NY 10011  
TEL: 212.242.8899



詩人: 이전구(李典九)

1964년 서울대 농대 졸업  
뉴욕골프센터 그룹 회장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9대 회장  
미동부 한국문인협회 14대 회장

